



세계인과 함께 만드는 해피타임
Korea Immigration Service Quarterly Magazine



Together Day 2012

Ceremony

5.20 오후 2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 극장

Program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다문화 장사 씨름대회
외국인 우리말 겨루기
보자기가방 만들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중앙 광장

상설프로그램

다문화 음식 부스
각종 체험 부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중앙 광장

축하공연

안산시립국악단
경찰 의장대

공식 홈페이지

www.togetherday.kr



제5회 세계인의 날 Let's Go, Together Day!

일시 | 2012년 5월 20일(Sun) 12:00-18:00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음력 1월 1일은 한국의 큰 명절 설날.
 중국과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이 날을 춘절이라고 하여 설날 그믐날 밤
 가족이 둘러 앉아 만두를 빚으며 밤을 지새우고,
 아침 해가 솟으면 폭죽을 터뜨려 집안의 악귀를 쫓습니다.
 또, 집집마다 대문에 춘련(春聯)이라는 글귀를 써 붙이거나
 글자 '복(福)'을 거꾸로 붙여 놓는 풍습이 있는데
 중국어로 읽으면 '복이 들어온다(福到了)'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국 땅에서 맞이하는 새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봄향기와 복을 전해 드립니다.

조화로운,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공존'을 생각합니다

2011년 한해 국내 출입국자가 사상 처음으로 4천 5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관광과 방문 목적의 외국인 입국이 11.4% 증가해 연간 외국인 입국자 1천만 명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는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IT기술개발에 힘입은 것이기도 합니다.

국내 체류외국인도 1백 40만 명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장기체류 외국인은 110만 명으로 우리 인구의 2.2%나 됩니다. 귀화자도 날로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인의 공로로 귀화자가 된 인요한 박사를 특별귀화자로 선정했고, 전국 각지의 수만 명 결혼이민여성들이 귀화를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난민신청이 급증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부터 난민심사팀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선진국으로서 난민을 돕고 보호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의 남용적 난민신청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사회의 법과 질서를 혼란시키는 일입니다. 21세기 신성장동력으로 여성과 해외 우수인력 확보가 대두되는 요즘, 국제적 인적교류가 활발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존'입니다.

조화로운,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행복이 아닌 함께 잘 살 수 있는 법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켜가겠습니다.

Thinking of
 Co-existence for
 the harmonious and
 prosperous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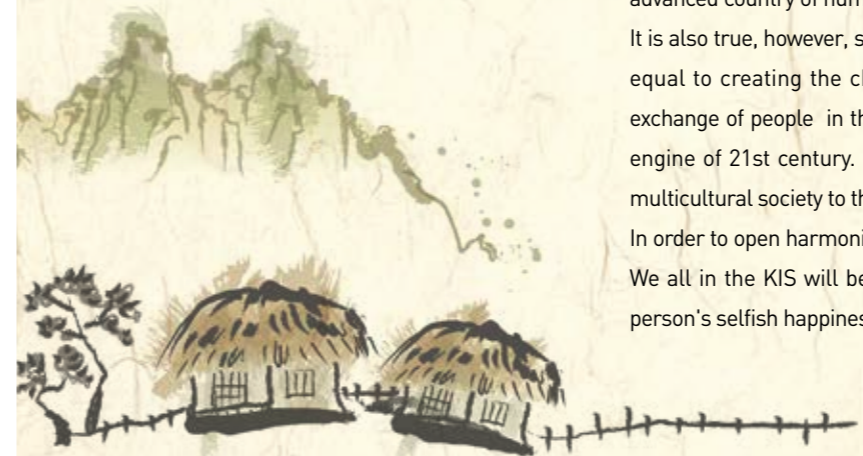
For the first time in 2011, the number of visitors to Korea exceeded 45 million on the annual basis. Especially those foreigners visiting Korea for tourism and visit increased by 11.4% hitting 10 million hurdles for the first time. For this record-breaking achievements, we owe a lot to the Government's efforts to improve systems such as the simplification of the visa issuing procedures, installment of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system and IT technology's development.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reached 1.4 million hitting the new record. Among them, the long-term foreign residents reached 1.1 million, taking up about 2.2% of the whole Korean population. The number of newly Koreanized citizens is also on the increase.

A few weeks ago, Mr. In Yohan became a newly Korean citizen thanks to his accomplishments and many of the marriage migrants are participating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for the naturalization.

On the other hand, Korea Immigration Service reshuffled the refugee deliberation team to better cope with the flooding refugee applications. It is something natural and inevitable for Korea, as an advanced country of human rights, to help and protect the refugees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It is also true, however, some foreign workers are abusing the refugee application system. This is equal to creating the chaos of law and order in the society. We welcome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eople in the age when women and global experts are welcomed as a new growth engine of 21st century. But there is one thing for us not to forget if we are to make a happy multicultural society to the satisfaction of all: co-existence.

In order to open harmonious and prosperous future, we need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We all in the KIS will be working hard to maintain the law and order for all, not just for one person's selfish happines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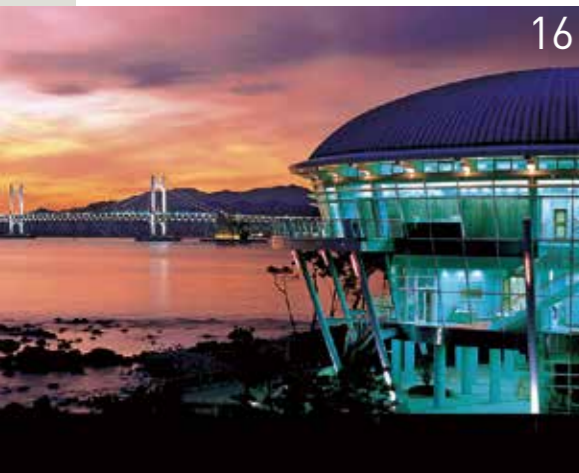
Commissioner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Chang Se LEE

共 ZONE

2012 SPRING NO.25
 세계인과 함께 만드는 해피타임



34



16



20



22



32



38

CONTENTS

- 02 공존의窓
- 03 Editor's Message 조화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SPECIAL THEME

- 06 Theme Intro SMART Korea, SMART 출입국
- 08 Theme Guide 이용자 편의 배려한 맞춤형 서비스
- 12 Theme Site 스마트 출입국 현장을 가다
- 14 Theme Review 스마트 서비스 아직도 모르시나요?

- 16 체험, Korea! 눈부신 해양도시 부산의 매력에 빠지다
- 20 Happy Together 카페 'WEE' 결혼이민여성 4인방
- 22 희망교실 스케치 '한국역사' 배우는 결혼이민여성들
- 25 출입국 NUMBERS 자동출입국심사 1천만 명 돌파
- 26 공존 초대석 봉사의 삶 실천한 마켓팅 닝게토
- 30 출입국 Q & A 방문예약 & 비자변경 신청

IMMIGRATION NOW

- 32 우리팀 포커스 가슴은 뜨겁게 '난민심사팀' 그들이 궁금하다
- 34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한 필리핀대사관 노무관
- 38 WOW 출입국 탐방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서
- 43 해외 단신 세계이민동향 No.79
- 48 출입국 News 1분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
- 50 Blue Post 독자에게 온 편지
- 51 음식으로 배우는 한국 봄철, 건강지킴이! '곰취나물'

38



COVER STORY

화합으로 일궈낸 행복한 가정

미소가 화사한 제효령(33 중국) 씨와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 남편 김명중(48) 씨, 8개월 된 진경이까지. 이들은 상대방 나라의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녀는 그동안 국적문제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원출입국사무소에서 안내해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공부와 귀화를 한번에 준비할 수 있었다.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한국 엄마'가 꿈이라는 그녀의 바람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Special Theme

SMART KOREA SMART IMMIGRATION

스마트 코리아, 스마트 출입국

01 Theme Guide

스마트한 출입국 정책 가이드

02 Theme Site

외국인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2012여수엑스포 현장>

03 Theme Review

외국인에게 물어본 스마트 출입국

요즘, 모든 분야에서 '스마트'가 대세다. 가전제품, 의류 심지어 음식까지 똑똑하고 편리한 '스마트'를 강조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물건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서비스도 스마트하게 변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마찬가지. 스마트한 출입국서비스란 첨단I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스마트 출입국서비스는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하이코리아, 휴넷코리아, 이동 출입국서비스 등 다양하다.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출입국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1대로 월 1만 3천 명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이는 심사관 1명을 대체하는 효과다. 빠른 서비스에 대한 이용객의 만족도를 대변하듯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매년 실시하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인천국제공항은 평가 사상 최초로 7년 연속(2005~2011년) 세계 1위를 달성했다.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만큼 자동출입국심사의 편리함도 반영됐을 것으로 본다. 스마트한 온라인 서비스에는 '하이코리아'와 '휴넷코리아'가 있다. '하이코리아'는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다. 그 중 방문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시 대기시간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사증 신청이 가능한 '휴넷코리아'는 사증추천인 제도를 실시해 해외 우수인력과의 교류를 돕고 있다. 의료관광사증도 '휴넷코리아'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최근 급증하는 의료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MOU협력을 맺은 대학에 직접 방문해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 출입국서비스', 결혼이민여성 네트워크 홈페이지 soci-Net, 크루즈 여행객을 위한 '관광상륙허가제' 등 곳곳에서 똑똑하고 편리한 정책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스마트 출입국서비스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관광객 유치와 해외인재 채용을 용이하게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 절차를 이용하는 내국인은 물론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해 스마트한 출입국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항의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온라인으로 사증발급이나 민원서류 신청 등이 가능한 Hi-Korea, 해외 우수인력의 교류를 돕는 HuNet-Korea,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soci-Net, 유학생의 체류를 돕는 이동 출입국서비스, 한국을 찾은 크루즈 및 의료관광객을 위한 서류심사 간소화 등 각 분야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KIS has implemented convenient immigration services for both Korean nationals and foreign residents in Korea. The user-friendly smart services are at work including SES(Smart Entry Service) at airports, Hi-Korea for online application, HuNet-Korea for global talents, soci-Net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mobile immigration offic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simplified immigration clearance for cruise and medical tourists. These are the fruits of tremendous hard work of KIS for the users' convenience.

01 Theme Guide

스마트한 출입국 서비스 안내

세심한 배려, 맞춤형 서비스 모든 이용객이 활짝 웃습니다

Thoughtful Care and Visitor-Oriented Service for Better Satisfaction

SES (Smart Entry Service)



무인심사대로 편리하게~ 대면심사는 정확하게!

장시간 비행으로 피로에 지쳐 입국심사장에 서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길게 늘어진 줄을 따라 수 십 분 이상 기다리다 보면 피곤은 더 가중된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 중인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를 이용하면 그런 걱정이 필요없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김해공항 등에 설치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빠른 입국절차가 가능해진다.

지난 3월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1만 4천 명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며 총 출입국자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출입국심사제는 2008년 시작되어 2009년 이용객 100만 명, 2010년 8월에는 국내 등록외국인 대상(영주, 기업투자 체류자격)으로 확대되었고, 지난 2월 누적 이용객 1천만 명을 돌파했다.

또 올해부터(4.30)는 현행 SES 이용 대상 외국인의 경우 기존 체류 자격에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 및 그 동반(F-3) 자격, 국민의 배우자(F-6) 자격 등 8개 체류자격을 추가한 총 10개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한국과 양해각서·협정에 의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에 합의한 국가의 국민을 이용 대상 외국인으로 확대하였다. 이번에 추가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등록외국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소지자와 그 동반자(F-3)
- 국민의 배우자(F-6)
- 영주(F-5) 자격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17세 이상의 자녀(F-2)
- 기업투자(D-8) 자격에서 거주(F-2)자격 으로 변경한 외국인
- 양해각서·협정에 의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에 합의한 국가의 국민

※ SES 이용을 원하는 외국인인 위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지문, 얼굴정보 제공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17세 이상으로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한다. 여권을 소지하고 인천·김포·김해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 KOTRA, 서울역도심공항 터미널에서 사용자 등록을 마치고 곧바로 SES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은 인천국제공항 24대, 김포공항 4대, 김해공항 3대가 설치 운영 중이며 인천공항은 올 상반기에 14대가 추가로 증설되고, 제주공항·인천항·평택항 등 지방공항만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SES 운영을 활성화하여 출입국 편의는 최대화하고 대면심사가 필요한 부분은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출입국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SES(Smart Entry Service)

After long flights, you might have experienced another long waiting line at the arrival counter for immigration clearance. It makes you much exhausted and annoyed. However, the SES(Smart Entry Service) will take away all the tiredness. According to a survey last March, 14,000 people per day use the service, taking up 11% of the total number of travelers. SES has started to implement in 2008, and the number of its users reached one million in 2009. Eligible users were only Korean nationals in the beginning, but foreign residents were allowed to use on August, 2010 even though it was limited to F-5(Permanent Resident) and D-8(Business Investor) status holders. After this expansion, the cumulative number of SES users hit ten million last February. In addition, the eligible sojourn status for SES has been expanded from 2 to 10 on April 30 this year, and foreign nationals whose home country signed an agreement or MOU with Korea on the mutual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are able to take advantage of SES. The newly allowed groups of foreign residents for SES are listed in the below.

- D-7(Intra-Corporate Transferee), D-8(Business Investor), D-9(Business Trader), E-1(Professor), E-3(Researcher),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객 통계>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3월 |
|--------------|-------------------|-----------------------|-----------------------|-----------------------|------------------------|
| 등록자 | | | | | |
| 1일 평균 | 204 | 245 | 396 | 1,067 | 1,223 |
| 전체 (누적) | 38,601 (38,601) | 89,379 (127,980) | 144,389 (272,369) | 389,410 (661,945) | 111,314 (779,259) |
| 이용자 | | | | | |
| 1일 평균 | 4,441 | 5,325 | 7,175 | 11,107 | 14,388 |
| 전체 (누적) | 834,915 (834,915) | 1,943,676 (2,778,591) | 2,618,874 (5,397,465) | 4,054,231 (9,470,801) | 1,309,272 (10,780,073) |
| 총 출입국자 대비(%) | 6.3% | 7.6% | 8.6% | 8.9% | 11% |

E-4(Technological Trainee), E-5(Professional) status and their Accompanying Family Member(F-3)

- F-6(Spouse of Korean Citizen)
- F-5(Permanent Resident) status and their spouses and children under 17(F-2)
- Foreign residents who has changed their status from D-8(Business Investor) to F-2(Resident)
- Foreign nationals whose home country signed an agreement or MOU with Korea on the mutual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system.

※ Among the above eligible foreigners for SES should be over 17; be registered; and provide their fingerprints and facial images. After registration at Incheon·Gimpo·Gimhae International airports, City Airport Terminals at COEX and Seoul Station, and KOTRA, one can use SES right away.

Currently, 24 automatic clearance machines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4 at Gimpo International Airport, and 3 at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are in operation. 14 machines will be additionally deploy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local international airports and seaports will start the automated immigration clearance system. By facilitating SES, KIS can make immigration clearance service much more convenient; put more efforts in screening interview of doubtful visitors; and foster efficiency of immigration service over all.

편리하게~ 휴넷코리아, 하이코리아

휴넷코리아(www.visa.go.kr)는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재외 공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된 온라인 서비스다. 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인력 확보 통로



Hi Korea Hunet Korea

를 넓히기 위해 사증추천인 제도를 시행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휴넷코리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다.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 특정활동(E-7)(다만, 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의 대분류 1 또는 2번 직종에 한함)
- 단기 의료관광(C-3-3), 우대기업 초청 단기방문(C-3-6), 유학(D-2), 여학연수(D-4-1), 비전문취업(E-9),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F-3), 장기 의료관광(G-1-10)

또한, 한류열풍과 세계적인 의료 수준으로 국내에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매년 급증해 지난해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만 11만여 명에 이른다.(한국관광공사·2012년 한국의료관광 총람)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1월부터 유치기관의 사증발급신청서 신청시 휴넷코리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의료사증발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민원 창구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방문민원의 최소화 및 민원인 급증 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2006년부터 운영된 하이코리아 이용자 수는

2011년 방문자 440만 명, 회원가입자 63만 명, 방문예약 15만 건, 전자민원 11만 건을 처리함으로써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시스템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Immigration Service at Your Home, HuNet Korea & Hi Korea

HuNet Korea(www.visa.go.kr) is a visa nomination and online visa application system that allows Korean companies to easily recruit global talents based on the established database and global talents to conveniently apply for their visa without visiting overseas Korean diplomatic missions or immigration offices. The types of visa available to apply for HuNet Korea are as follows:

- E-1(Professor), E-2(Foreign Language Instructor), E-3(Researcher), E-4(Technological Trainee), and E-5(Professional)
- E-7(Specially Designated Activities)
 - ※ Limited to classification 1 or 2 of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 C-3-3(Short-term Medical Tourist), C-3-6(Short-term Visitor by Invitation of a Preferential Corporate), D-2(International Student), D-4-1(Language Student), E-9(Unskilled Worker), F-3(Accompanying Family member) of the above first two categories, and G-1-10(Long-term Medical Tourist)

Besides, the number of foreign visitors for medical tour has been rapidly increased, and 110,000 medical tourists came to Korea solely last year. Therefore, KIS has facilitated rapid visa issuance for medical tourists by allowing the hospitals use HuNet Korea for applying a Certification of Visa Issuance Approval of their patients.

Hi Korea is an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for foreign residents and provides them with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immigration services including visa issuance, employment, residence, and lifestyle. It saves time and troubles of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and waiting for their services.

In 2011, 4.4 million people visited the website; 630,000 users are registered; 150,000 people used the reservation service; and 110,000 cases were dealt with through the website. Now, Hi Korea has firmly established.

유학생할을 돕는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서비스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 어학연수생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MOU가 체결된 대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출입국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등록 및 지문취득 등 유학생 자격으로 체류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기타 출입국 관련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매년 실시되는 이 서비스는 올해에도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10일간 MOU가 체결된 7개 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에 총 2천 353건이 처리됐다. 본인이 직접 해당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 대기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즉시 보완하여 접수할 수 있는 현장 원스톱(ONE STOP) 서비스에 유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Immigration Service at Your School, Mobile Immigration Office

KIS provides international students with immigration services at their schools that have MOU with us. Last February and March, which is the beginning of a semester, KIS visited 7 universities and dealt with 2,353 cas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is service saves the students' time, and international students are highly satisfied with the service since they can get missing documents and solve a problem at the same spot and at the same time.

바다에서도 빠르게~ 관광상륙허가제

최근 고급여행 상품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크루즈관광객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무사증 입국기능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시킨 관광상륙허가제를 시행(5.27)한다. 부산, 인천, 제주 등 항만(港灣)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관광상륙허가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크루즈여행객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따라 여객선에 승선한 외국인 관광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승객에 한하여 별도의 비자발급 없이 최장 3일간 국내에 상륙을 허가하는 제도다. 2007년 56척에 불과했던 크루즈 입항 수는 2011년 141척으로 증가했다. 승객 수도 2007년 3만 3천여 명에서 지난해는 14만 5천 명에 이르러 관광상륙허가제가 선박 이용 관광객들에게 빠른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 이용 외국인이 관광상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 운수업자는 승객정보(사진자료 포함) 및 여행사 정보를 EDI 전산망을 통해 24시간 전까지 입항 예정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송
- 해당 출입국사무소가 자료를 통해 규제자 검색 및 부적격자에 대해 운수업자에게 통보하고 하선 방지 조치
- 입항 후 운수업자가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광상륙허가 신청서,

승객명단, 출국보증각서 등 관광상륙허가 신청서류 제출

-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문·얼굴정보 제공 면제 및 개별심사 생략 등 간이심사절차 후 운수업자에게 관광상륙허가서 발급

Streamlined Entry, Landing Permit Policy for Cruise Tour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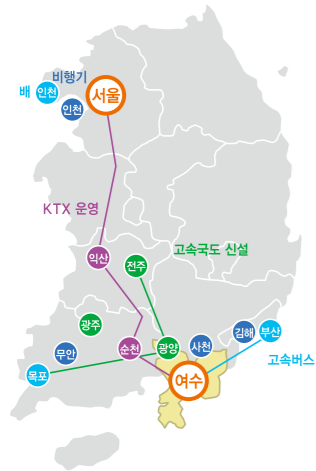
The number of luxurious cruise tour has been recently increased, and KIS will launch simplified Landing Permit Policy from May 27, 2012. Immigration offices at seaports allows cruise passengers who meet certain requirements to enter the country for maximum 3 days by issuing a landing permit upon the request of cruise captain or carrier.

There were just 56 cruises entering Korean seaports in 2007, but last year, 141 cruises came to Korea. Followed by the increased number of cruises, the number of cruise passengers has increased from 33,000 in 2007 to 145,000 in 2011. Therefore, introducing the Landing Permit Policy is expected to offer fast and convenient immigration service for cruise tourists. The below is procedures of the Landing Permit Policy.

- A cruise carrier sends information of passengers(including photos) and tour company to the immigration office at seaport where the cruise enters through EDI computer network within 24 hours prior to arrival.
- The relevant immigration office informs the carrier of unqualified passengers for the Landing Permit and prevents them from getting off the cruise.
- The carrier submits related documents including an application, a manifest, and a affidavit of departure of their passengers to the immigration office after arrival.
- The immigration officer issues the Landing Permit for cruise tourists to the carrier, and cruise passengers are exempted from fingerprints and facial image taking procedure and individual immigration clearance.

<크루즈 입항 현황>

| 연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입항 수(척) | 56 | 74 | 85 | 137 | 141 |
| 승객 수(명) | 33,473 | 59,648 | 66,998 | 147,699 | 145,255 |



여수엑스포 외국인관광객 입장권 구매

- 여수엑스포 공식홈페이지
www.expo2012.kr 에서 가능
(단, 해외배송은 불가능하므로 현장 수령)
- 입장권 문의 1577-2012
- 외국인 단체(30인 이상) 원검코리아
02-1599-8812에서 예매 시 추가 할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해양축제 ‘여수엑스포’는 바다를 배경으로 국제관, 기업관, 아쿠아리움 등 특화시설 4개와 전시시설 76개가 펼쳐진다. 세계축제인 만큼 외국인관광객의 언어소통 편의를 위해 각 지점마다 통역요원과 자원봉사자가 배치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시관 개사 및 일반관광객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출입국 혜택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육해공 교통망 어디서나 편리하게

남해바다의 여수와 세계 각지를 잇는 신속한 교통망이 육해공을 망라하고 구축되었다. 행사기간 동안 지상에서 서울과 행사장을 바로 잇는 KTX가 여수엑스포역에 정착하고 엑스포 행사장에 위치한 통합여객 터미널엔 중국·일본 등지에서 크루즈여행객이 입항한다. 항공편으로는 인천·김포공항은 물론, 국내선 전용인 여수공항에도 국제선 착륙을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여수엑스포 통합여객터미널에는 행사기간 동안 크루즈 6척이 총 9회에 걸쳐 입항하고, 승객은 총 3천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승객들의 신속한 출입국 허가를 위해 기존에 선원만 가능했던 ‘상륙허가제’를 일반 관광객까지 확대시켜 실시한다. 여수출입국사무소는 크루즈 여행객 입항시 5~6명의 인력을 엑스포 여객터미널에 배치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출입국 절차를 도울 예정으로 모든 시스템 준비를 마쳤다. 또 광주 무안공항은 중국인단체관광객에 한해 입국심사장에서 입국 허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도착비자제’를 시행하여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절차의 간소화는 일반 외국인관광객뿐만 아니라 전시관계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인천·김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행사관계자들은 ‘여수엑스포 전용 출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완벽한 서비스

“갑자기 어지러운데 어떻게 해야 하지?” “국제기구관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낯선 외국 땅에서 이런 상황은 당혹스럽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수엑스포에선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통역센터와 각 안내소에 전문통역요원 450여 명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이하 봉사자) 600여 명이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통역요원은 중·일본어, 영어 등의 외국어로 전시관 설명을 담당하고 봉사자는 회장의 질서 유지와 관람객 안내를 맡아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전문적이고 세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수엑스포 자원봉사자운영부 지석호 과장은 “각 배치소마다 1~2명의 봉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어 구사가 가능하며 긴박한 경우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등 기본 의료교육도 실시해 세계축제 수준에 맞는 서비스 준비를 마쳤습니다.” 라며 외국인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일어, 중국어, 불어, 영어 등을 제외한 언어는 통역봉사단체 ‘BBB Korea (1588-5644)’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02 Theme Site
2012 여수세계박람회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아니, 이렇게 편리할 수가!

세계 각지에서 100여 개 나라가 참여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5월12일부터 93일간 여수신항 앞바다에서 펼쳐진다. 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 19년 만에 열리는 2012세계여수엑스포. 스마트 기술과 접목된 이번 행사에는 무려 55만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 전시 관계자들의 원활한 국내 체류와 관광객의 편리한 전시 관람을 돕기 위한 각종 출입국 절차 및 통역 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본다.



‘원스톱 서비스’로 여수엑스포 성공 지원할 것 ● 여수엑스포를 관람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출입국심사 및 사증발급 절차가 간소화됐어요. 특히, ‘관광상륙허가’와 ‘도착비자’ 제도로 사증발급이 면제되거나 간편해졌죠. ‘관광상륙허가제’의 경우 서류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승객에 한해 사증 없이 최장 3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전시관계자들을 위해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체류 관련 각종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여수, 광주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해 원활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각종 절차의 간소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입국자를 차단하기 위해 크루즈여행객선착장에서 입국 외국인 지문 및 얼굴 확인제도를 시행하는 등 국외유입을 위한 보안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2여수엑스포 출입국 지원 담당 박병찬 계장

스마트 서비스 아직 모르시나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출입국정책 서비스도 스마트하게 변하고 있다. 자동출입국심사, 휴넷코리아, 이동 출입국서비스 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다양한 정책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 출입국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산가와 (55 일본) / 후지사카와 (32) / 관광객 ● 한국에 자주 방문해요.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할 겸 딸과 함께 왔어요. 얼마 전부터 일본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간단한 사진신청으로 지문과 얼굴 확인만 했을 뿐인데 출입국절차가 한 번에 되더군요. 대기시간이 없어 빠르고 편리해요. 한국에서도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키 (23 중국) / 관광객 ● 오빠와 함께 서울 여행 4일째예요. 다음엔 부산에 가고 싶어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직접 가본 적은 없거든요. 중국에서 부산은 선박을 이용해 가기도 하는데 '관광상륙허가제'가 있는 건 몰랐어요. 선상심사로 출입국절차가 간소화된다니 정말 편리하겠네요. 다음엔 비행기가 아닌 크루즈로 부산에 꼭 한번 가볼게요.

조나단 (27 미국) / 관광객 ● 런던, 일본 등 세계 각국을 여행 중인데 이번에는 한국 차례가 됐어요. 재한외국인 친구 말이 한국은 라식 등 레이저 수술이 수준급이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도 곧 라식수술을 할 생각인데 '휴넷코리아'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료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다니 놀랍네요.

베로니카 (25 체코) / 학생 ● 루치에, 온드레이와는 동갑내기 2월 말에 함께 한국에 왔어요. 최근에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했었어요. '이동 출입국서비스'는 알고 있었지만 시기가 맞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어요. '이동 출입국서비스'가 학교에 와서 민원을 해결해줘 편리한 만큼 기간을 더 연장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 (37 미국) / 회화강사 ●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휴넷코리아'를 통해 사증신청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니 그거 정말 편리한 서비스네요. 회화강사 체류자격 때문에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많아 오래 기다린 경험이 있거든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만 확실하다면 당연히 이용해야죠.

패트릭 (24 미국) / 학생 ● 미국에서 제가 살던 곳은 사막지역이에요. 한국은 환경이 너무 달라서 모든 것이 새롭죠. 작년 8월 한국에 와서 출입국사무소에 갈 일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한 '하이코리아'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고 영어로 번역 서비스까지 된다고 하니 앞으로 이용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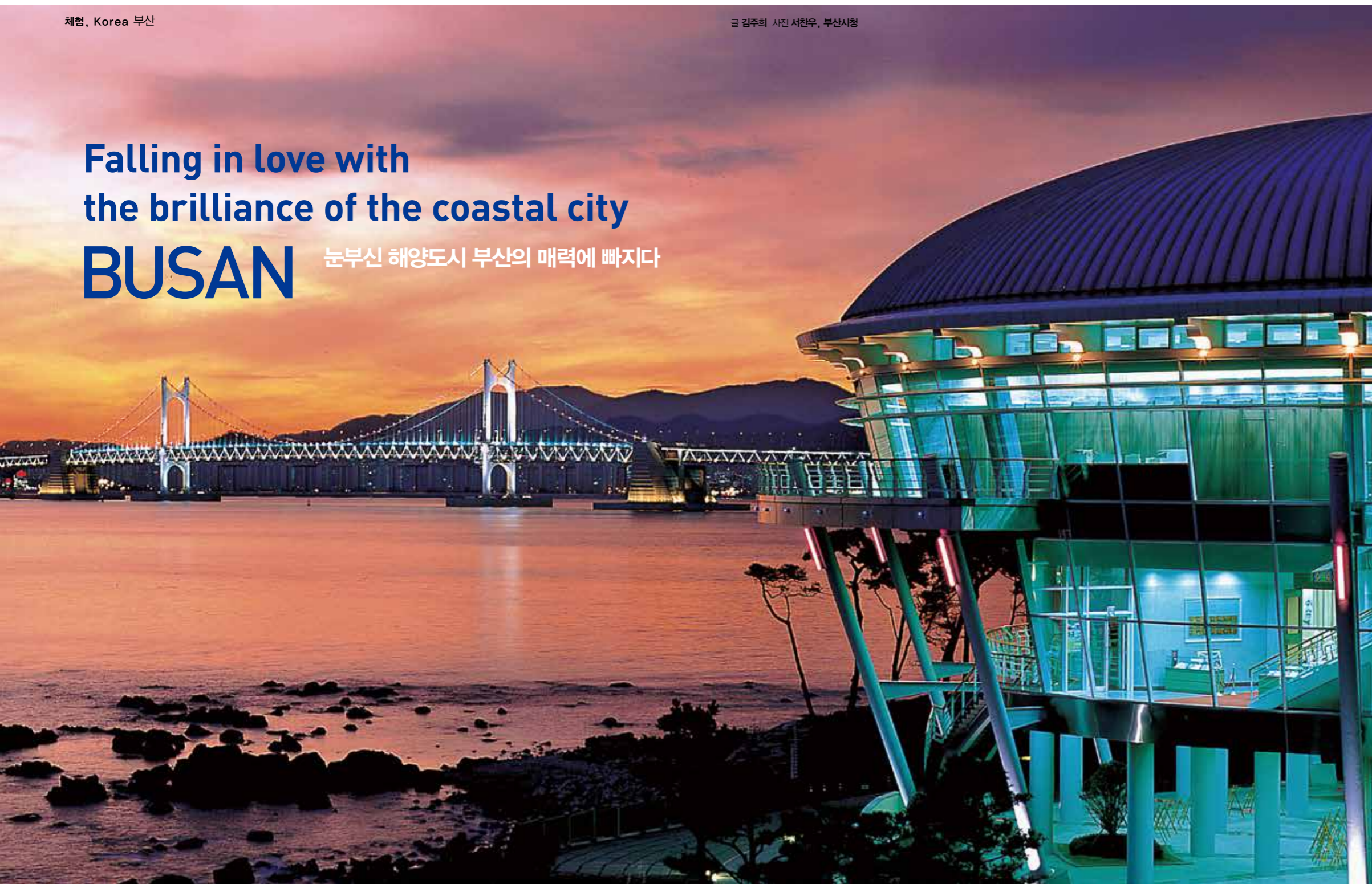
루크 (19 프랑스) / 관광객 ● 며칠 전 누나와 함께 왔는데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입국할 때 출입국심사가 5~10분 쯤 걸렸죠. 신속해서 좋았어요.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아직 사용해본 적은 없어요.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대상이 확대돼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Falling in love with the brilliance of the coastal city

BUSAN

눈부신 해양도시 부산의 매력에 빠지다



외국인이 서울 다음으로 가고싶다고 손꼽는 도시 부산. 부산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한여름 피서객이 몰려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활기찬 자갈치시장, 시원한 광안대교, 광복동 쇼핑거리...등등. 부산 어디를 가도 낯설지 않은 모습이 내·외국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풍경이다. 한국 남도여행지 대표격인 부산의 봄은 평화롭고 역동적이다. 보라빛 바다와 상쾌한 해풍이 매력적인 그 곳, 부산을 체험해보자.

The most desirable travel destination in Korea among foreigners following Seoul is Busan. What kind of image does Busan project? It is a place of familiarity with the Haeundae Beach, crowded with vacationers in summer, the lively Jagalchi Market, the Gwangan Bridge, the Gwangbok-dong Shopping District, etc., where foreigners and Koreans come together. The spring in this iconic travel destination of the southern provinces is peaceful yet dynamic. Let's experience Busan, a charming place with purple-colored sea and refreshing sea breeze.

자연, 도시 그리고 문화가 빛어낸 해양관광도시

일본 도쿄, 중국 정셴, 미국 오클라호마시티. 한국의 대표 해양도시 부산과 위도가 비슷한 세계의 도시들이다. 부산-서울을 오가는 고속열차 KTX와 김해국제공항 그리고 일본 오사카, 시모노세키 등과 연결된 국제여객항로를 통해 연간 수 십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국제도시. 1876년 국제항 개항 이후 한국 제2의 도시로 성장한 부산의 인구는 현재 약 360만 명(2011. 12. 31 기준)으로 장기체류 외국인도 35,116명이나 된다.

부산은 신·구의 조화가 아름다운 해양도시다. APEC 회담장으로 유명한 누리마루, 종합전시관 벅스코(BEXCO), 해운대의 초고층 오피스텔 등의 세련된 건축물은 부산의 국제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상징. 영남의 3대 사찰 범어사, 달맞이고개, 자갈치시장 등은 부산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명소다.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4개 노선, 하루 16회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 등 부산은 여행객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했다. 풍부한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거리가 다양한 부산을 저렴하고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한다.

A coastal city of tourism created with a harmony of nature, urbanism and culture

Tokyo of Japan, Jeongsen of China, and Oklahoma City of the U.S. are situated along the same latitude as the representative coastal city of Korea, Busan. Since the opening of the international port in 1876, Busan has grown into the second largest city in Korea. The present population of Busan is approximately 3.6 million (as of Dec. 31, 2011) with 35,116 sojourning foreigners.

Busan is a beautiful marine city that presents a harmony between the old and the new. The sophisticated architectural structures such as Nurimaru, famous as the venue of the APEC summit, the comprehensive exhibition center BEXCO and the high-rise condominium buildings in Haeundae represent Busan as a cosmopolitan city, whereas its history and traditions can be felt and experienced at Beomeosa Temple, which is one of the three major temples of Yeongnam, Dalmaji-gogae and Jagalchi Market, etc. In addition, Busan is equipped with an extensive transportation network to accommodate travelers with the 4 subway lines that extend throughout the city and the city tour bus that operate 16 times a day, and offers diverse things to eat, see and experience. Here are our recommended itineraries to help you enjoy everything that Busan has to offer in an affordable way.





Busan is the best travel destination in South Korea!

I enjoyed the view from the top of the Busan Tower, overlooking the city and the ocean. It was beautiful. I loved Busan because the sceneries were especially more beautiful than other places.

Mary (25, U.S.) / Tourist



A miniature version of Busan - the Nampo-dong region

As soon as you exit from the Nampo Station on Busan Subway Line #1, you will see the famous tourist attractions of Busan including the shopping and fashion district of Gwangbok-dong, PIFF Square, International Market, Jokbal (Pork Hock) Alley, Jagalchi Market and more.

The 'Arirang Street,' situated in the International Market that boasts 60 years of history, is frequented by foreign tourists. Here, you can enjoy an exotic view of customers sitting on small plastic chairs, eating Chungmu gimbal (rice rolls), shikhye (sweet rice drink), patjuk (red bean porridge), etc.

At another famous attraction in Busan, the Jagalchi Market, you can enjoy hoe (raw fish) at an affordable price. You can enjoy the view of stores and restaurants lined up along a 400-m alley, with seafood buffet restaurant and guesthouses at the Jagalchi Market Center newly established to accommodate tourists. The Guesthouse Korea Busan Jagalchi is a highly popular and affordable accommodation with 1/3 of its patrons being foreigners.

A complete view of Busan at Yongdusan Park

When you follow the side road in Nampo-dong, you will notice a secluded trail. Walking up the stairway between the trees will lead you to the Yongdusan Park containing the Busan Tower. The mountain, which came to be known as 'Mt. Yongdu' because it appeared like the head of a dragon, ascending from the sea, is one of the most recommended tourist attractions in Busan. At the observatory in the Busan Tower with a height of 120m, you will enjoy a 180° view of the city center and the waterfront near Yeongdo Bridge.

Atsushi Aizuka (Japanese, 23), whom we met at the observatory, said, "Busan shares close resemblances [to Fukuoka or Nagoya of Japan] such as

bridges over the sea and the alleys on the hills. Busan has such a scenic landscape and there are so many kinds of delicious food available such as eomuk guksu (fish ball soup) and japchae (mixed dish of noodles, stir-fried vegetables, and shredded meat)."

The harmonious blend of modernity and nature - Haeundae

There are numerous beaches in Busan such as Dadaepo and Gwanganri but the most famous of them all is the Haeundae beach. The subway station and city tour bus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beachside road. The streets are lined with cafes, restaurants and high-class hotels. During the summer vacation season, the beach is packed with travelers and local people, but it is extremely peaceful in spring and you can even see foreign couples basking under the sun on the beach.

Boarding the cruise ship at the Mipo Dock at the end of the beach will take you to the middle of the sea, where you can take commemorative photos with the spectacular backdrop of skyscrapers and Gwangan Bridge. The 1-hr cruise course that takes you around Gwangan Bridge and Dongbaek Island to enjoy the cool sea breeze and the company of seagulls is highly popular among children as well.

Gijang Market with a plenty of snow crabs and king crabs

Gijang Market, where you can hear the pleasant voices of merchants asking you to come into their stores, is actually more famous as the 'Gijang Snow Crabs and Fish Market.' The snow crabs and king crabs that are to be distributed nationwide are gathered at this market. The transparent water tanks are filled with red snow crabs, snow crabs and king crabs, and the towering steamers found at each of the stores are used throughout the day.

The merchant who has been working at the Gijang Market for the past 14 years lifted up a red snow crab as she said, "We have many different foreigners coming here, but majority of them are from Japan and Hong Kong. They love this place because they can eat fresh crabs at an affordable price - even when they take their airfare into account."

Visiting all the famous tourist attractions in Busan - City Tour Bus

Sharlotte (33) and Jelai (34), tourists visiting from the Philippines, praised Busan explaining, "It is great to enjoy the view of Busan in the open bus. We found gamja-tang (pork-on-the-bone soup), haemulpajeon (seafood pancake), Gwanganri and Taejongdae quite memorable, and would like to come to Busan again."

Busan City Tour Bus courses are divided into circulation type and theme type. The circulation course consists of sightseeing in Haeundae and Taejongdae, while the theme course concentrates on the tourist attractions of Busan such as exploration into history and culture and Eulsuk-do ecosystem. For inquiries, contact U Busan City Tour: 1688-0098 📞

Busan Experience: the Taste and Style of Korea!

Mandeok Tteuraejang

At Mandeok Tteuraejang, which is a permanent traditional food experience center affiliated with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of Busan Metropolitan



City, you can try making various traditional Korean dishes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You can make and taste various types of sacues, kimchi and Dongnae pajeon (Dongnae pancake), which is a Busan speciality, by following the recipe

Inquiries : 051-513-1777

For Pottery Experience - Busanyo

At Busanyo, which boasts the longest history among the kilns found in Busan, you can try making pottery. After trying out the traditional spinning wheel and hand-



painting, those who wish to experience the tea ceremony may do so. Making traditional pottery while enjoying the smell of soil is a healing experience highly recommended to those who are tired of the city life. Inquiries: 010-3889-1874

Making Sanseong Makgeolli

At the Geumjeong Sanseong Village, you can make traditional makegeolli using nuruk and godubap (hard-cooked rice) through the 'Sanseong Makgeolli Making'



program. This is a highly popular place among foreigners as they can enjoy the true taste of makgeolli, the traditional liquor of Korea that is garnering much attention worldwide.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other experiential programs such as natural dye and crop experiential programs.

Inquiries: 051-518-0014

Web site URL: sanseong.invil.org

Seoul-Busan Shuttle Bus for foreigners (free of charge)

- Operation Period: until Dec. 31, 2012
- Eligibility: Those with foreign citizenship
- Boarding Location: Donghwa Duty Free in Gwanghwamun, Seoul and Lotte Hotel in Seomyeon, Busan
- Inquiries: 1577-2507
- Web site URL: www.visitkoreayear.com



“친자매처럼
의지하며
서로의 에너지가
되어주죠”

‘친형제보다 낫다’, 혈연 관계 이상으로 우애가 깊은 친구사이를 칭찬하는 말이다. 지난해 12월 오픈한 다문화 카페 'Wee'. 커피향 가득한 이곳에서 친형제 못지 않게 도란도란 자매애를 쌓아가는 이들이 있다. 필리핀, 캄보디아, 카자흐스탄에서 온 결혼이민여성 4인방이 그 주인공들. ‘커피 바리스타’의 꿈을 키우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녀들을 만났다. (좌측부터 조크레실다, 스투이멧, 엘레나, 심마일라)

따사로운 햇살 아래 향긋한 커피 한잔이 생각나는 봄날. 다문화카페 'WEE'를 찾았다. “어서오세요~.” 카자흐스탄 결혼이민여성 엘레나(37) 씨가 먼저 손님을 맞이한다. 분주해 보이는 주방에선 필리핀 결혼이민여성 조크레실다(35) 씨와 심마일라(26) 씨가 제법 익숙한 솜씨로 커피를 내리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온 스투이멧(20) 씨는 이제 막 출근했는지 유니폼 매무새를 손질하며 생긋 웃어 보인다.

배우고, 실수하며 쌓인 우정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네 사람이 어떻게 만났을까? 이들의 인연은 경기도 성남시 우리다문화가정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요리 교육과정에서 시작됐다. 조크레실다 씨는 “처음엔 모두들 무뚝뚝해서 말 걸기도 힘들었는데 조금 지내다 보니 다들 활발한 친구들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서로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푸웃~” 이라며 웃어 보인다.

네 사람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엘레나 씨는 얼마 전 카페 'WEE'의 새로운 멤버로 합류한 왕언니. “오픈 멤버가 아니라서 서먹하기도 했지만 동생들이 이것저것 자세하게 알려줘서 적응하기 쉬웠어요. 정말 고마운 동생이죠.” 엘레나와 조크레실다는 오전 근무조, 심마일라와 스투이멧은 오후 근무조로 서로 교대근무를 한다. 네 사람이 함께 만나는 시간은 잠깐 뿐이지만 서로 마주칠 때마다 생글생글 웃음이 절로 난다.

심마일라 씨는 “제 꿈은요, 필리핀 휴양지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그대로 닮은 커피 매장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 소식을 듣고 당장 신청했죠.” 라고 말한다. 그렇게 시작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이 이제 그녀들 삶의 활력소이며 힘이 되는 버팀목 같은 친구를 만들어 준 셈.

커피를 만드는 법부터 손님응대까지 나름대로 모든 교육과정을 마쳤지만 실전은 달랐다. “주문을 받으면 포스에 메뉴를 입력해야 하는데 위치를 못 찾아 당황하고 연습할 때와 다르게 손님 말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곤란했던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서로 기운을 북돋아주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직장은 삶의 에너지, 동료는 지원군

현장 근무 5개월째. 이제는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 받을 정도로 한국어가 능숙해지고 커피의 진정한 맛을 이해할 만큼 되었다는 그녀들이다.

낯선 나라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그녀들에게 매일 함께하는 서로가 친자매나 다름없다. 스투이멧 씨는 캄보디아에 친언니가 있지만 한국에선 함께하는 동료들이 친언니라고. “한국에 온지 얼마 안돼서 정말 힘든 점이 많았는데 언니들이 항상 도와줬어요. 친언니를 대신해 한국생활에 빠른 적응력을 갖게 해 준 든든한 지원군이예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역원으로도 일하는 조크레실다 씨는 다른 직장보다 카페 'WEE'가 특별하다고 했다. “통역원일 땐 혼자 일하지만 여기는 다른 결혼이민여성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돼요. 서로 알고 있는 생활정보를 나누는 것도 큰 힘이 되거든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에너지’를 얻어간다는 조크레실다 씨는 넷이 함께 만든 추억이 없어 아쉽다. 서로 바쁘지만 기회가 된다면 함께 바다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만나 제2의 행복을 그려가는 그녀들의 소망이 이뤄지길 바란다. ☺



카페 'WEE'에서는
다른 결혼이민여성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돼요.
서로 알고 있는 생활정보를
나누는 것도 큰 힘이 되거든요



“한국인의 끝없는 열정과 노력을 이해하게 됐어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 들어서자 단아한 외모의 베트남 여성이 반갑게 환영의 인사를 건넨다. 1층에 마련된 북카페에는 한가로이 차를 마시며 중국어로 된 책을 읽고 있는 여성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는 이주여성들이 보인다. 국내인보다 외국인의 인구비중이 더 높고, 건물 내부 곳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곳.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율이 국내에서 가장 높다는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역사수업현장을 방문해 보았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과정
역사반 수강생

Suwon Migrant community service
www.suwonmcs.com

한국사회의 편입을 돕는 최대 관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들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 국적필기시험이 바로 그것. 한국인이자라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을 단기간에 익히고 배워야 하기에 외국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이다. 이미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국적필기고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워하는 시험이기에 국적필기시험장에서는 재수, 삼수를 하는 외국인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필기시험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지금 역사 수업을 듣고 계시는 결혼이민자들 중에도 필기시험에 떨어지고 오신 분들이 세 분 정도예요. 필기시험이 너무 어려우니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면제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지센터의 프로그램 담당자 김용옥 씨는 2년 반, 결코 짧지 않은 교육기간임에도 매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총 450시간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 과정 400시간과 한국사회이해 과정 50시간으로 구성된다. 한국사회이해란 한국의 제도, 법률, 역사, 풍습, 공동생활, 언어, 생활정보 및 문화 등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이해 증진을 위해 폭넓게 진행된다.

고조선에서 근·현대사까지 한국사 총망라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얼굴이죠?” 커다란 스크린에 울국 이이의 초상화가 비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속 학자를 과연 외국인들이 알고 있을까? 라는 의문도 잠시, 강의실 여기저기에서 이이라는 낯선 역량의 정답들이 쏟아진다. 한 베트남 여성은 지갑에서 오천 원짜리 지폐를 꺼내 다시 한 번 얼굴을 살피기도 한다.

오늘의 역사 수업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겨우 2시간에 걸쳐 진행되기에 방대한 분량이지만 강사가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며 25명의 수강생들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역사 수업은 총 5단계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 ‘한국사회이해’ 과정으로 고조선부터 근·현대사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총망라해 5시간 동안 진행된다.

“겨우 5시간으로 우리 역사 속 수많은 사건과 위인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업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해 짧은 시간 동안 최대의 용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 우리의 민족성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수업을 진행하는 배금란 강사는 올해로 4년째 이 센터에서 한국어를 비롯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녀에게 있어 이 수업은 단



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한국인에 대한 사상과 민족성을 수강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체감하고 이해하여 그 속에 직접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세계에 유래 없는 정확한 기록, 자부심 느껴

“한국의 역사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하니까 아기와 남편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온 제효령 씨는 이제 8개월짜리 아이를 둔 결혼이민여성이다. 국적취득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처음 접하는 방대한 한국 역사는 어느 정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녀에게도 쉽지 않은 학문이다. 그래도 중국에는 없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하고, 태어난 아기와 남편을 위해 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는 각오를 다진다. 그녀는 “어렵지만 역사를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한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한국을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하게 됐다.

아버지 고향이 충북 성주군이라는 조선족 이선화 씨에게 한국사는 그리 낯설지 않은 내용들이다. 조선족이라 고구려 역사를 배운 적이 있다는 이선화 씨는 “어릴 적 배웠던 내용이라 많은 부분을 잊었는데 이 수업 덕분에 다시 배울 수 있어서 새롭고, 모르던 부분을 알게 되어 공부하는 게 즐겁다”며 “다른 나라와 달리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한국에 대해 대단하다는 느낌과 이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 국적을 취득한 남편에 이어 이번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국의 역사는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만 역사를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역사수업은 한국인과
우리 고유의 민족성을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이죠



이선화 씨는 하루 빨리 국적을 취득해 2세가 아닌 아버지와 같은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이를 위해 국적 취득 원해

“국적 취득을 원하시는 결혼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국적취득을 원하세요. 아이가 자라서 엄마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아이보다 서툰 한국어에 실망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시죠.” 외국인복지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담당자 김용옥 씨는 결혼이민자들이 국적취득을 원하는 가장 절실한 이유가 아이에게 있다고 얘기한다.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도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교육을 절실히 원하는 엄마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결혼이민자들은 초급 2단계를 마치면 바로 마지막 단계로 진급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아기의 성장에 맞춰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시험 합격률이 확연히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기초 15시간은 한국어를 익히기엔 매우 부족한 시간이죠. 게다가 한국인이 되려는 분들에게 우리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현실적인 교육을 위해 기초와 역사 교육에 좀 더 시간을 배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희망과 꿈을 키우는 외국인 복지 요람이 되길

연간 2만 명의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저희 센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함께 외국인들의 한국생활 적응은 물론 자격증,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라별 커뮤니티가 잘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램 참여뿐만 아니라 친구를 만나고 정보를 나누기 위해 이곳을 찾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모르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된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도와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변경숙** 관장

출입국 NUMBERS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008년 6월 인천국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3년 8개월 동안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여 출입국한 인원이 2012년 2월 8일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출입국심사 절차를 첨단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간소화·자동화한 것으로 심사관의 대면심사에 따른 승객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시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국내 출입국자 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도입되었다.

2008년 처음 인천국제공항에 20대를 설치,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해에는 24대를 증설하였고, 이후 김포공항 4대, 김해공항에 3대를 설치하는 등 현재 전국적으로 31대가 편리한 출입국심사를 실현하고 있다. 올해는 인천공항에 자동심사대 14대가 추가로 설치되어 총 45대로 늘어난다.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출입국심사 전 등록센터에 방문해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 여부 등 출입국 적격 심사를 심사관 대면없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최첨단 출입국시스템이다.

10년 전이다. 월드컵 열기로 후끈했던 2002년 마지막 날, 보신각 타종행사에 파란 눈의 외국인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1953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에 외국인인 50년 만에 처음. 한국에서 20여 년 동안 봉사의 삶을 실천한 마가렛 닝게토(65) 할머니가 그 주인공이다. 스위스에서 태어나 인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를, 곧 떠나게 될 전북 군산의 집에서 만났다.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이 안타까운 스위스 할머니

새하얀 곱슬머리가 인상적인 초로의 할머니, 마가렛 닝게토. 1972년 그는 스위스 간호사였다. 170센티미터가 넘는 흰철한 키의 그는 1975년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여행객이었다. 그리고 10년 뒤 1985년 그는 전남 광주의 한 육아원에서 아이를 돌보는 파란 눈의 간호사였고 그 뒤로 울산의 장애인시설, 경기도 보육원, 군산의 장애인시설 등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했다. 닝게토는 이 땅에서 20여 년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살아왔다. 우리도 외면하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스위스 국적의 한국인으로.

스위스에서 태어나 청춘을 바친 한국

닝게토의 고향 스위스 라이미스빌은 시골이다. 교통수단이 없어 시내를 가려면 한참을 걸어야 했다고. 작은 시골마을에서 2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난 닝게토는 또래보다 뒤늦게 전문학교에 입학해 간호사수업을 받고, 1972년 스위스에 파견된 한국인 간호사들과 우연히 같은 병원에서 일하며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을 알게 됐다.

한국인 간호사들을 통해 호기심으로 배우게 된 한국어. 그 인연으로 닝게토는 1975년 두 달간의 휴가를 한국에서 보내기로 마음 먹고 입국했다. “동대문 뒤편에 동숭동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골목마다 마주치는 풍경이. 아휴~ 그때 한국 정말 가난했죠. 아이들도 어른도 모두 사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지금은 한국에 그런 사람들 없지만...”

별다른 목적 없이 휴가를 즐기러 왔던 그에게 한국의 첫 인상은 무척 가난한 나라였지만, 며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동안 당장 먹고 살기는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잃지않은 그들 이면의 정을 느끼게 됐다고. 제 때 공부하지 못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스위스 아가씨 닝게토의 마음이 동했고, 그 때부터 그는 어렵게 자라나는 한국 아이들의 후원인을 자처했다. 스위스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번 돈으로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돕기 시작한 것.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 공장에 일하러 가야 살 수 있다는 사정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후원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후원은 지방에 사는 남매였죠. 스위스에 돌아가서

도 그 아이들이 계속 눈에 밝히고 다른 어려운 아이들도 내 손으로 직접 도와줄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75년 이후에도 후원하는 아이들을 만나러 두 세 번 더 방문했었어요. 처음엔 고민 많이 했는데... 당시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닝게토의 눈에 비친 가난한 한국 아이들. 그는 결국 1985년 선교인 자격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하기로 결심을 굳히고 입국했다.

10마리의 개들이 가족, 외로움 달래줘

춘삼월은 온데 없고, 춘사월도 시샘을 하는지 매서운 강풍이 불었다. 군산 대야면 대차보검소 앞. 그 맞은편에 콘크리트 블록 담장과 바람에 넘어질 듯 낮은 철대문 집이 있다. 땀방

의 마당 한 칸에 조립식 가건물 한 채. 닝게토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다.

“바람이 정말 세계 불어요. 지붕 날아갈 거 같아. 어서 들어가세요.” 닝게토 할머니는 품에 어린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손님을 맞았다. 들썩거리는 조립식 가건물 지붕, 강아지를 가두는 작은 철망들, 구석에는 긴 연통의 난로가 보였다. 빨갛은 보이지 않았다. 싸늘한 실내공기. 세 평 남짓한 거실과 주방. 작은 방 두 칸. 여기서 닝게토 할머니는 10마리의 개들과 함께 동거 중이다.

성대수술을 했는지 소리를 못 내는 녀석, 한쪽 다리가 휘어져 뒤뚱거리는 녀석, 동네 대나무숲에서 만나 친구가 된 유기견 등 할머니가 원래 키우던 2마리까지 더해져 10마리의 개들이 동시에 짖어대니 집안은 금새 이수라장이 됐다.

“한국에 와서 첫 직장으로 시작한 곳이 전남 광주 영진육아원이었어요. 알콜중독 아버지, 어느날 갑자기 나가버린 엄마... 부모에게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후로 광주의 양로원, 울산의 장애인시설, 경기도 용인보육원, 전북 군산의 목양원까지. 2003년 관절수술을 하기 전까지 그녀는 20여 년간 전국을 다니며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과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 노인들에게 나눔을 실천했다.

그의 사랑을 받고 손을 거쳐간 아이들만 수 백명.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 남을 도우며 사는 고마운 아이도 있지만, 엄마 같은 사랑을 베풀 닝게토에게 상처를 주는 아이들도 있었다. “갑자기 연락해서 핸드폰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했어요. 빌려줬죠. 다음달부터 40만원 씩 요금이나오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성인으로 자라서 결혼까지 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해 보내줬더니 그 뒤로 연락이 끊기더군요. 한참 뒤에 경찰서에서 찾는 전화가 걸려 오고는 했죠.”

어긋난 아이들, 죄를 짓는 아이들. 그는 자신의 사랑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 70년대 시절 힘들어도 서로를 위해주고 보듬는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엔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래서 후회하지도 않는다. 낯선 나라에서 27년째 살아가며 백발 할머니가 돼버린 닝게토. 한 때는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 봉사자라고 주변의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건 저체온증과 관절염 그리고 가난이다. 하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다. 아낌없이 사랑을 줌으로써 더 큰 사랑을 받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세계 아이들을 돌보는 '영원한 엄마'

현장 봉사를 은퇴하고서 그녀에게 다른 즐거움이 생겼다. 그는 몇 해 전부터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을 통해 26명의 아이들을 1대1로 후원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에서 매월 65만원을 떼어 몽골·스리랑카·에티오피아 등 다른 나라의 아이들을 돕는 일이다. 거실 가운데 놓인 사각테이블 위에는 결연후원아동에게서 온 감사편지가 있다. 편지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있다.

“가끔씩 시장을 보거나, 주일에 교회 갔다가 모임에서 식사를 같이할 때가 있어요. 1만원 정도는 금세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몽골이나 에티오피아 나라의 아이들은 1만 원짜리 세 장이면 한 달을 먹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 돈으로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이 없지만 그곳은 달라요. 내가 조금 더 아끼면 더 어려운 나라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으니 그게 기쁜 일이지요.”

스위스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봉사인생 20년, 이제는 세계 각지의 아이들까지 돌보는 닝게토. ‘아이들의 영원한 엄마’로 30년 나눔인생을 살고 있는 그에게 요즘 반가운 소식 두 가지가 들려왔다. 하나는 친여동생 소식이다. 스위스에 살고 있는 동생이 남편 퇴직에 맞춰 한국 언니 곁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해 온 것. 1985년 스위스를 떠나 온 이후 1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한 번 고국에 다녀왔을 뿐, 가족과 거의 소식을 끊고 살아왔다고.

또 기쁜 소식 하나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겨서다.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한국인 친구로부터 충북 진천에 그가 살 수 있는 조그만 집을 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늘 변변치 않은 살림에 남만 도와주며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딱했는지 닝게토 할머니의 친구가 기꺼이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다.

꽃이 한창 필 5월이면 지금보다 살기 편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그에게 삶의 터전이 군산이나 진천이나는 중요하지 않다. 10마리의 개들과 함께 살 수 있고, 그를 두고 ‘مام미’라고 부르는 몽골 아이들이 보내 온 사진과 편지를 읽으며 지낼 수 있으면 족하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물었더니, 시내 음식점에서 7천 원 받는 이탈리아 파스타라고 했다. 그런데 ‘먹고 싶긴 한데 돈이 아까워 사먹을 수 없어. 아이들 생각이 나서’라며 고개를 절레절레한다. 앞으로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따스한 온정과 나눔의 기쁨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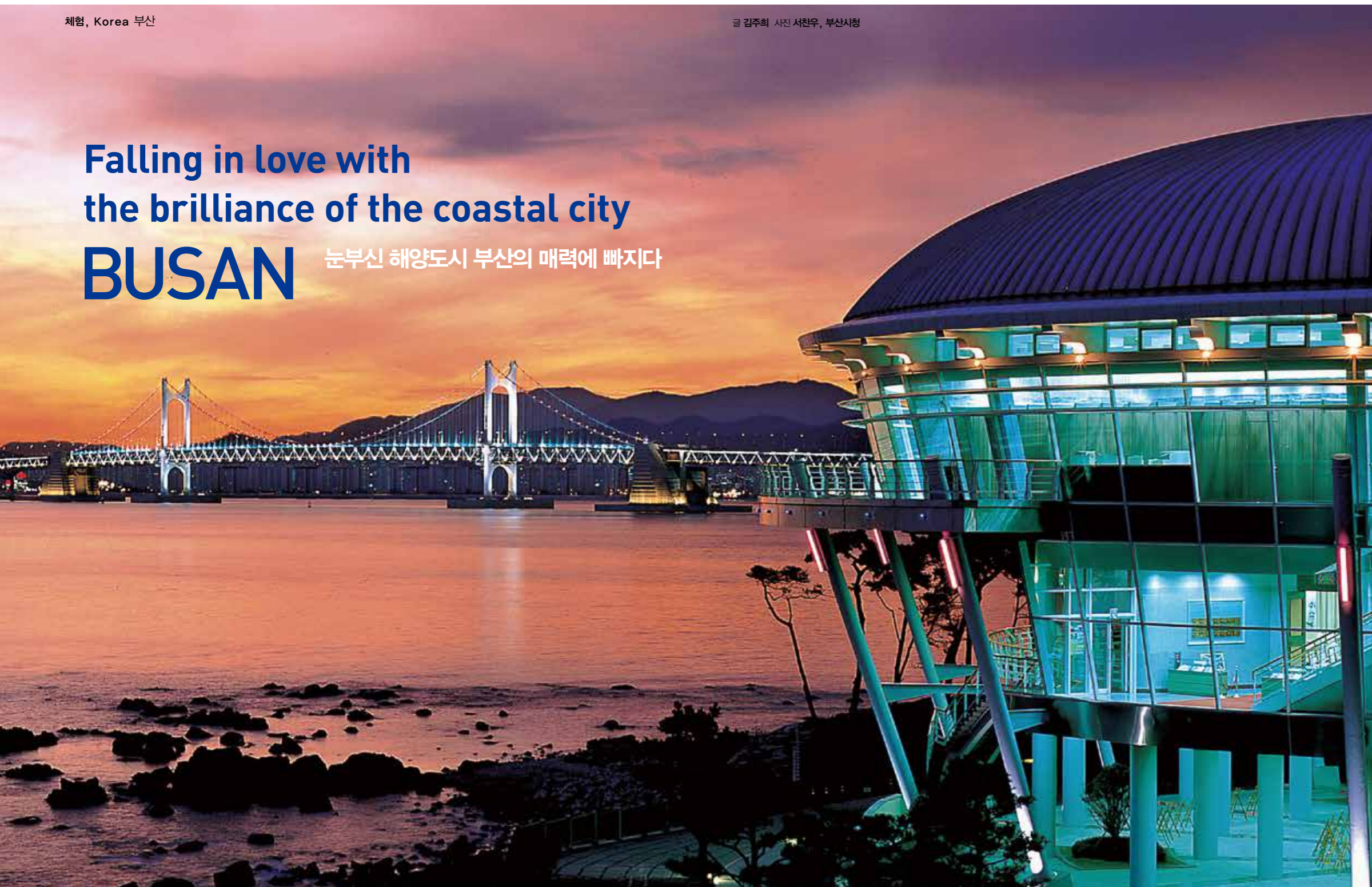


몽골이나 에티오피아 나라의 아이들은 1만원 세장이면 한 달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아끼면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으니 그게 기쁜 일이지요.



Falling in love with the brilliance of the coastal city BUSAN

눈부신 해양도시 부산의 매력에 빠지다



외국인이 서울 다음으로 가고싶다고 손꼽는 도시 부산. 부산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한여름 피서객이 몰려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활기찬 자갈치시장, 시원한 광안대교, 광복동 쇼핑거리...등등. 부산 어디를 가도 낯설지 않은 모습이 내·외국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풍경이다. 한국 남도여행지 대표격인 부산의 봄은 평화롭고 역동적이다. 보라빛 바다와 상쾌한 해풍이 매력적인 그 곳, 부산을 체험해보자.

The most desirable travel destination in Korea among foreigners following Seoul is Busan. What kind of image does Busan project? It is a place of familiarity with the Haeundae Beach, crowded with vacationers in summer, the lively Jagalchi Market, the Gwanggan Bridge, the Gwangbok-dong Shopping District, etc., where foreigners and Koreans come together. The spring in this iconic travel destination of the southern provinces is peaceful yet dynamic. Let's experience Busan, a charming place with purple-colored sea and refreshing sea breeze.

자연, 도시 그리고 문화가 빛어낸 해양관광도시

일본 도쿄, 중국 정셴, 미국 오클라호마시티. 한국의 대표 해양도시 부산과 위도가 비슷한 세계의 도시들이다. 부산-서울을 오가는 고속열차 KTX와 김해국제공항 그리고 일본 오사카, 시모노세키 등과 연결된 국제여객항로를 통해 연간 수 십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국제도시. 1876년 국제항 개항 이후 한국 제2의 도시로 성장한 부산의 인구는 현재 약 360만 명(2011. 12. 31 기준)으로 장기체류 외국인도 35,116명이나 된다.

부산은 신·구의 조화가 아름다운 해양도시다. APEC 회담장으로 유명한 누리마루, 종합전시관 벅스코(BEXCO), 해운대의 초고층 오피스텔 등의 세련된 건축물은 부산의 국제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상징. 영남의 3대 사찰 범어사, 달맞이고개, 자갈치시장 등은 부산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명소다.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4개 노선, 하루 16회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 등 부산은 여행객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했다. 풍부한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거리가 다양한 부산을 저렴하고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한다.

A coastal city of tourism created with a harmony of nature, urbanism and culture

Tokyo of Japan, Jeongsen of China, and Oklahoma City of the U.S. are situated along the same latitude as the representative coastal city of Korea, Busan. Since the opening of the international port in 1876, Busan has grown into the second largest city in Korea. The present population of Busan is approximately 3.6 million (as of Dec. 31, 2011) with 35,116 sojourning foreigners.

Busan is a beautiful marine city that presents a harmony between the old and the new. The sophisticated architectural structures such as Nurimaru, famous as the venue of the APEC summit, the comprehensive exhibition center BEXCO and the high-rise condominium buildings in Haeundae represent Busan as a cosmopolitan city, whereas its history and traditions can be felt and experienced at Beomeosa Temple, which is one of the three major temples of Yeongnam, Dalmaji-gogae and Jagalchi Market, etc. In addition, Busan is equipped with an extensive transportation network to accommodate travelers with the 4 subway lines that extend throughout the city and the city tour bus that operate 16 times a day, and offers diverse things to eat, see and experience. Here are our recommended itineraries to help you enjoy everything that Busan has to offer in an affordable way.





Busan is the best travel destination in South Korea!

I enjoyed the view from the top of the Busan Tower, overlooking the city and the ocean. It was beautiful. I loved Busan because the sceneries were especially more beautiful than other places.

Mary (25, U.S.) / Tourist



A miniature version of Busan - the Nampo-dong region

As soon as you exit from the Nampo Station on Busan Subway Line #1, you will see the famous tourist attractions of Busan including the shopping and fashion district of Gwangbok-dong, PIFF Square, International Market, Jokbal (Pork Hock) Alley, Jagalchi Market and more.

The 'Arirang Street,' situated in the International Market that boasts 60 years of history, is frequented by foreign tourists. Here, you can enjoy an exotic view of customers sitting on small plastic chairs, eating Chungmu gimbal (rice rolls), shikhye (sweet rice drink), patjuk (red bean porridge), etc.

At another famous attraction in Busan, the Jagalchi Market, you can enjoy hoe (raw fish) at an affordable price. You can enjoy the view of stores and restaurants lined up along a 400-m alley, with seafood buffet restaurant and guesthouses at the Jagalchi Market Center newly established to accommodate tourists. The Guesthouse Korea Busan Jagalchi is a highly popular and affordable accommodation with 1/3 of its patrons being foreigners.

A complete view of Busan at Yongdusan Park

When you follow the side road in Nampo-dong, you will notice a secluded trail. Walking up the stairway between the trees will lead you to the Yongdusan Park containing the Busan Tower. The mountain, which came to be known as 'Mt. Yongdu' because it appeared like the head of a dragon, ascending from the sea, is one of the most recommended tourist attractions in Busan. At the observatory in the Busan Tower with a height of 120m, you will enjoy a 180° view of the city center and the waterfront near Yeongdo Bridge.

Atsushi Aizuka (Japanese, 23), whom we met at the observatory, said, "Busan shares close resemblances [to Fukuoka or Nagoya of Japan] such as

bridges over the sea and the alleys on the hills. Busan has such a scenic landscape and there are so many kinds of delicious food available such as eomuk guksu (fish ball soup) and japchae (mixed dish of noodles, stir-fried vegetables, and shredded meat)."

The harmonious blend of modernity and nature - Haeundae

There are numerous beaches in Busan such as Dadaepo and Gwanganri but the most famous of them all is the Haeundae beach. The subway station and city tour bus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beachside road. The streets are lined with cafes, restaurants and high-class hotels. During the summer vacation season, the beach is packed with travelers and local people, but it is extremely peaceful in spring and you can even see foreign couples basking under the sun on the beach.

Boarding the cruise ship at the Mipo Dock at the end of the beach will take you to the middle of the sea, where you can take commemorative photos with the spectacular backdrop of skyscrapers and Gwangan Bridge. The 1-hr cruise course that takes you around Gwangan Bridge and Dongbaek Island to enjoy the cool sea breeze and the company of seagulls is highly popular among children as well.

Gijang Market with a plenty of snow crabs and king crabs

Gijang Market, where you can hear the pleasant voices of merchants asking you to come into their stores, is actually more famous as the 'Gijang Snow Crabs and Fish Market.' The snow crabs and king crabs that are to be distributed nationwide are gathered at this market. The transparent water tanks are filled with red snow crabs, snow crabs and king crabs, and the towering steamers found at each of the stores are used throughout the day.

The merchant who has been working at the Gijang Market for the past 14 years lifted up a red snow crab as she said, "We have many different foreigners coming here, but majority of them are from Japan and Hong Kong. They love this place because they can eat fresh crabs at an affordable price - even when they take their airfare into account."

Visiting all the famous tourist attractions in Busan - City Tour Bus

Sharlotte (33) and Jelai (34), tourists visiting from the Philippines, praised Busan explaining, "It is great to enjoy the view of Busan in the open bus. We found gamja-tang (pork-on-the-bone soup), haemulpajeon (seafood pancake), Gwanganri and Taejongdae quite memorable, and would like to come to Busan again."

Busan City Tour Bus courses are divided into circulation type and theme type. The circulation course consists of sightseeing in Haeundae and Taejongdae, while the theme course concentrates on the tourist attractions of Busan such as exploration into history and culture and Eulsuk-do ecosystem. For inquiries, contact U Busan City Tour: 1688-0098 📞

Busan Experience: the Taste and Style of Korea!

Mandeok Tteuraejang

At Mandeok Tteuraejang, which is a permanent traditional food experience center affiliated with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of Busan Metropolitan



City, you can try making various traditional Korean dishes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You can make and taste various types of sacues, kimchi and Dongnae pajeon (Dongnae pancake), which is a Busan speciality, by following the recipe

Inquiries : 051-513-1777

For Pottery Experience - Busanyo

At Busanyo, which boasts the longest history among the kilns found in Busan, you can try making pottery. After trying out the traditional spinning wheel and hand-



painting, those who wish to experience the tea ceremony may do so. Making traditional pottery while enjoying the smell of soil is a healing experience highly recommended to those who are tired of the city life. Inquiries: 010-3889-1874

Making Sanseong Makgeolli

At the Geumjeong Sanseong Village, you can make traditional makegeolli using nuruk and godubap (hard-cooked rice) through the 'Sanseong Makgeolli Making'



program. This is a highly popular place among foreigners as they can enjoy the true taste of makgeolli, the traditional liquor of Korea that is garnering much attention worldwide.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other experiential programs such as natural dye and crop experiential programs.

Inquiries: 051-518-0014

Web site URL: sanseong.invil.org

Seoul-Busan Shuttle Bus for foreigners (free of charge)

- Operation Period: until Dec. 31, 2012
- Eligibility: Those with foreign citizenship
- Boarding Location: Donghwa Duty Free in Gwanghwamun, Seoul and Lotte Hotel in Seomyeon, Busan
- Inquiries: 1577-2507
- Web site URL: www.visitkoreayear.com



“친자매처럼
의지하며
서로의 에너지가
되어주죠”

‘친형제보다 낫다’, 혈연 관계 이상으로 우애가 깊은 친구사이를 칭찬하는 말이다. 지난해 12월 오픈한 다문화 카페 'Wee', 커피향 가득한 이곳에서 친형제 못지 않게 도란도란 자매애를 쌓아가는 이들이 있다. 필리핀, 캄보디아, 카자흐스탄에서 온 결혼이민여성 4인방이 그 주인공들. ‘커피 바리스타’의 꿈을 키우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녀들을 만났다. (좌측부터 조크레실다, 스투이멧, 엘레나, 심마일라)

따사로운 햇살 아래 향긋한 커피 한잔이 생각나는 봄날. 다문화카페 'WEE'를 찾았다. “어서오세요~.” 카자흐스탄 결혼이민여성 엘레나(37) 씨가 먼저 손님을 맞이한다. 분주해 보이는 주방에선 필리핀 결혼이민여성 조크레실다(35) 씨와 심마일라(26) 씨가 제법 익숙한 솜씨로 커피를 내리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온 스투이멧(20) 씨는 이제 막 출근했는지 유니폼 매무새를 손질하며 생긋 웃어 보인다.

배우고, 실수하며 쌓인 우정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네 사람이 어떻게 만났을까? 이들의 인연은 경기도 성남시 우리다문화가정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요리 교육과정에서 시작됐다. 조크레실다 씨는 “처음엔 모두들 무뚝뚝해서 말 걸기도 힘들었는데 조금 지내다 보니 다들 활발한 친구들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서로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푸웃~” 이라며 웃어 보인다.

네 사람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엘레나 씨는 얼마 전 카페 'WEE'의 새로운 멤버로 합류한 왕언니. “오픈 멤버가 아니라서 서먹하기도 했지만 동생들이 이것저것 자세하게 알려줘서 적응하기 쉬웠어요. 정말 고마운 동생이죠.” 엘레나와 조크레실다는 오전 근무조, 심마일라와 스투이멧은 오후 근무조로 서로 교대근무를 한다. 네 사람이 함께 만나는 시간은 잠깐 뿐이지만 서로 마주칠 때마다 생글생글 웃음이 절로 난다.

심마일라 씨는 “제 꿈은요, 필리핀 휴양지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그대로 담은 커피 매장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 소식을 듣고 당장 신청했죠.” 라고 말한다. 그렇게 시작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이 이제 그녀들 삶의 활력소이며 힘이 되는 버팀목 같은 친구를 만들어 준 셈.

커피를 만드는 법부터 손님응대까지 나름대로 모든 교육과정을 마쳤지만 실전은 달랐다. “주문을 받으면 포스에 메뉴를 입력해야 하는데 위치를 못 찾아 당황하고 연습할 때와 다르게 손님 말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곤란했던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서로 기운을 북돋아주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직장은 삶의 에너지, 동료는 지원군

현장 근무 5개월째. 이제는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 받을 정도로 한국어가 능숙해지고 커피의 진정한 맛을 이해할 만큼 되었다는 그녀들이다.

낯선 나라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그녀들에게 매일 함께하는 서로가 친자매나 다름없다. 스투이멧 씨는 캄보디아에 친언니가 있지만 한국에선 함께하는 동료들이 친언니라고. “한국에 온지 얼마 안돼서 정말 힘든 점이 많았는데 언니들이 항상 도와줬어요. 친언니를 대신해 한국생활에 빠른 적응력을 갖게 해 준 든든한 지원군이예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역원으로도 일하는 조크레실다 씨는 다른 직장보다 카페 'WEE'가 특별하다고 했다. “통역원일 땐 혼자 일하지만 여기는 다른 결혼이민여성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돼요. 서로 알고 있는 생활정보를 나누는 것도 큰 힘이 되거든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에너지’를 얻어간다는 조크레실다 씨는 넷이 함께 만든 추억이 없어 아쉽다. 서로 바쁘지만 기회가 된다면 함께 바다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만나 제2의 행복을 그려가는 그녀들의 소망이 이뤄지길 바란다. ☺



카페 'WEE'에서는 다른 결혼이민여성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돼요. 서로 알고 있는 생활정보를 나누는 것도 큰 힘이 되거든요



“한국인의 끝없는 열정과 노력을 이해하게 됐어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 들어서자 단아한 외모의 베트남 여성이 반갑게 환영의 인사를 건넨다. 1층에 마련된 북카페에는 한가로이 차를 마시며 중국어로 된 책을 읽고 있는 여성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는 이주여성들이 보인다. 국내인보다 외국인의 인구비중이 더 높고, 건물 내부 곳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곳.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율이 국내에서 가장 높다는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역사수업현장을 방문해 보았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과정
역사반 수강생

Suwon Migrant community service
www.suwonmcs.com

한국사회의 편입을 돕는 최대 관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들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 국적필기시험이 바로 그것. 한국인이자라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을 단기간에 익히고 배워야 하기에 외국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이다. 이미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국적필기고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워하는 시험이기에 국적필기시험장에서는 재수, 삼수를 하는 외국인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필기시험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지금 역사 수업을 듣고 계시는 결혼이민자들 중에도 필기시험에 떨어지고 오신 분들이 세 분 정도예요. 필기시험이 너무 어려우니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면제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지센터의 프로그램 담당자 김용옥 씨는 2년 반, 결코 짧지 않은 교육기간임에도 매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총 450시간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 과정 400시간과 한국사회이해 과정 50시간으로 구성된다. 한국사회이해란 한국의 제도, 법률, 역사, 풍습, 공동생활, 언어, 생활정보 및 문화 등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이해 증진을 위해 폭넓게 진행된다.

고조선에서 근·현대사까지 한국사 총망라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얼굴이죠?” 커다란 스크린에 울곡 이이의 초상화가 비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속 학자를 과연 외국인들이 알고 있을까? 라는 의문도 잠시, 강의실 여기저기에서 이이라는 낯선 역량의 정답들이 쏟아진다. 한 베트남 여성은 지갑에서 오천 원짜리 지폐를 꺼내 다시 한 번 얼굴을 살피기도 한다.

오늘의 역사 수업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겨우 2시간에 걸쳐 진행되기에 방대한 분량이지만 강사가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며 25명의 수강생들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역사 수업은 총 5단계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 ‘한국사회이해’ 과정으로 고조선부터 근·현대사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총망라해 5시간 동안 진행된다.

“겨우 5시간으로 우리 역사 속 수많은 사건과 위인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업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해 짧은 시간 동안 최대의 용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 우리의 민족성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수업을 진행하는 배금란 강사는 올해로 4년째 이 센터에서 한국어를 비롯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녀에게 있어 이 수업은 단



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한국인에 대한 사상과 민족성을 수강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체감하고 이해하여 그 속에 직접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세계에 유래 없는 정확한 기록, 자부심 느껴

“한국의 역사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하니까 아기와 남편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온 제효령 씨는 이제 8개월짜리 아이를 둔 결혼이민여성이다. 국적취득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처음 접하는 방대한 한국 역사는 어느 정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녀에게도 쉽지 않은 학문이다. 그래도 중국에는 없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하고, 태어난 아기와 남편을 위해 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진다. 그녀는 “어렵지만 역사를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한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한국을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하게 됐다.

아버지 고향이 충북 성주군이라는 조선족 이선화 씨에게 한국사는 그리 낯설지 않은 내용들이다. 조선족이라 고구려 역사를 배운 적이 있다는 이선화 씨는 “어릴 적 배웠던 내용이라 많은 부분을 잊었는데 이 수업 덕분에 다시 배울 수 있어서 새롭고, 모르던 부분을 알게 되어 공부하는 게 즐겁다”며 “다른 나라와 달리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한국에 대해 대단하다는 느낌과 이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 국적을 취득한 남편에 이어 이번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국의 역사는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만 역사를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역사수업은 한국인과
우리 고유의 민족성을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이죠



이선화 씨는 하루 빨리 국적을 취득해 2세가 아닌 아버지와 같은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이를 위해 국적 취득 원해

“국적 취득을 원하시는 결혼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국적취득을 원하세요. 아이가 자라서 엄마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아이보다 서툰 한국어에 실망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시
죠.” 외국인복지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담당자 김용옥 씨는 결혼이
민자들이 국적취득을 원하는 가장 절실한 이유가 아이에게 있다고
얘기한다.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도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교육을
절실히 원하는 엄마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결혼이
민자들은 초급 2단계를 마치면 바로 마지막 단계로 진급할 수 있도
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아기의 성장에 맞춰 빠른 시간 내에 결과
를 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시험 합격률이 확연히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했다고.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
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기초 15시간은 한국어를 익히기엔 매
우 부족한 시간이죠. 게다가 한국인이 되려는 분들에게 우리 역
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현실적인 교육을 위해 기초와
역사 교육에 좀 더 시간을 배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희망과 꿈을 키우는 외국인 복지 요람이 되길

연간 2만 명의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저희 센터는 사회
통합프로그램과 함께 외국인들의 한국생활 적응은 물
론 자격증,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라별 커뮤니티가 잘 구성되
어 있어 프로그램 참여뿐만 아니라 친구를 만나고 정
보를 나누기 위해 이곳을 찾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모르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
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된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도와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는 분들이 더 많아
지기를 희망합니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변경숙** 관장

출입국 NUMBERS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008년 6월 인천국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3년 8개월 동안 자동심사대를 이
용하여 출입국한 인원이 2012년 2월 8일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출입국심사 절차를 첨단 정보기술(IT)을 기반
으로 간소화·자동화한 것으로 심사관의 대면심사에 따른 승객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시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또한, 구
준히 증가하는 국내 출입국자 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도입되었다.

2008년 처음 인천국제공항에 20대를 설치,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해에는 24대를 증설하였고, 이후 김포공항 4대, 김해공항에
3대를 설치하는 등 현재 전국적으로 31대가 편리한 출입국심사를 실현하고 있다. 올해는 인천공항에 자동심사대 14대가 추가로 설치
되어 총 45대로 늘어난다.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출입국심사 전 등록센터에 방문해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 여부 등 출입국
적격 심사를 심사관 대면없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최첨단 출입국시스템이다.

10년 전이다. 월드컵 열기로 후끈했던 2002년 마지막 날, 보신각 타종행사에 파란 눈의 외국인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1953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에 외국인인 50년 만에 처음. 한국에서 20여 년 동안 봉사의 삶을 실천한 마가렛 닝게토(65) 할머니가 그 주인공이다. 스위스에서 태어나 인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를, 곧 떠나게 될 전북 군산의 집에서 만났다.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이 안타까운 스위스 할머니

새하얀 곱슬머리가 인상적인 초로의 할머니, 마가렛 닝게토. 1972년 그는 스위스 간호사였다. 170센티미터가 넘는 흰칠한 키의 그는 1975년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여행객이었다. 그리고 10년 뒤 1985년 그는 전남 광주의 한 육아원에서 아이를 돌보는 파란 눈의 간호사였고 그 뒤로 울산의 장애인시설, 경기도 보육원, 군산의 장애인시설 등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했다. 닝게토는 이 땅에서 20여 년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살아왔다. 우리도 외면하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스위스 국적의 한국인으로.

스위스에서 태어나 청춘을 바친 한국

닝게토의 고향 스위스 라이미스빌은 시골이다. 교통수단이 없어 시내를 가려면 한참을 걸어야 했다고. 작은 시골마을에서 2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난 닝게토는 또래보다 뒤늦게 전문학교에 입학해 간호사수업을 받고, 1972년 스위스에 파견된 한국인 간호사들과 우연히 같은 병원에서 일하며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을 알게 됐다.

한국인 간호사들을 통해 호기심으로 배우게 된 한국어. 그 인연으로 닝게토는 1975년 두 달간의 휴가를 한국에서 보내기로 마음 먹고 입국했다. "동대문 뒤쪽에 동숭동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골목마다 마주치는 풍경이. 아휴~ 그때 한국 정말 가난했죠. 아이들도 어른도 모두 사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지금은 한국에 그런 사람들 없지만..."

별다른 목적 없이 휴가를 즐기러 왔던 그에게 한국의 첫 인상은 무척 가난한 나라였지만, 며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동안 당장 먹고 살기는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잃지않은 그들 이면의 정을 느끼게 됐다고. 제 때 공부하지 못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스위스 아가씨 닝게토의 마음이 동했고, 그 때부터 그는 어렵게 자라나는 한국 아이들의 후원인을 자처했다. 스위스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번 돈으로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돕기 시작한 것.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 공장에 일하러 가야 살 수 있다는 사정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후원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후원은 지방에 사는 남매였죠. 스위스에 돌아가서

도 그 아이들이 계속 눈에 밝히고 다른 어려운 아이들도 내 손으로 직접 도와줄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75년 이후에도 후원하는 아이들을 만나러 두 세 번 더 방문했었어요. 처음엔 고민 많이 했는데... 당시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닝게토의 눈에 비친 가난한 한국 아이들. 그는 결국 1985년 선교인 자격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하기로 결심을 굳히고 입국했다.

10마리의 개들이 가족, 외로움 달래줘

춘삼월은 온데 없고, 춘사월도 시샘을 하는지 매서운 강풍이 불었다. 군산 대야면 대차보검소 앞. 그 맞은편에 콘크리트 블록 담장과 바람에 넘어질 듯 낮은 철대문 집이 있다. 땀땀

의 마당 한 칸에 조립식 가건물 한 채. 닝게토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다.

“바람이 정말 세계 불어요. 지붕 날아갈 거 같아. 어서 들어가세요.” 닝게토 할머니는 품에 어린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손님을 맞았다. 들쭉거리는 조립식 가건물 지붕, 강아지를 가두는 작은 철망들, 구석에는 긴 연통의 난로가 보였다. 빨갛은 보이지 않았다. 싸늘한 실내공기. 세 평 남짓한 거실과 주방. 작은 방 두 칸. 여기서 닝게토 할머니는 10마리의 개들과 함께 동거 중이다.

성대수술을 했는지 소리를 못 내는 녀석, 한쪽 다리가 휘어져 뒤뚱거리는 녀석, 동네 대나무숲에서 만나 친구가 된 유기견 등 할머니가 원래 키우던 2마리까지 더해져 10마리의 개들이 동시에 짖어대니 집안은 금새 이수라장이 됐다.

“한국에 와서 첫 직장으로 시작한 곳이 전남 광주 영진육아원이었어요. 알콜중독 아버지, 어느날 갑자기 나가버린 엄마... 부모에게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후로 광주의 양로원, 울산의 장애인시설, 경기도 용인보육원, 전북 군산의 목양원까지. 2003년 관절수술을 하기 전까지 그녀는 20여 년간 전국을 다니며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과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 노인들에게 나눔을 실천했다.

그의 사랑을 받고 손을 거쳐간 아이들만 수 백명.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 남을 도우며 사는 고마운 아이도 있지만, 엄마 같은 사랑을 베풀 닝게토에게 상처를 주는 아이들도 있었다. “갑자기 연락해서 핸드폰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했어요. 빌려줬죠. 다음달부터 40만원 씩 요금이나오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성인으로 자라서 결혼까지 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해 보내줬더니 그 뒤로 연락이 끊기더군요. 한참 뒤에 경찰서에서 찾는 전화가 걸려 오고는 했죠.”

어긋난 아이들, 죄를 짓는 아이들. 그는 자신의 사랑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 70년대 시절 힘들어도 서로를 위해주고 보듬는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엔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래서 후회하지도 않는다. 낯선 나라에서 27년째 살아가며 백발 할머니가 돼버린 닝게토. 한 때는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 봉사자라고 주변의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건 저체온증과 관절염 그리고 가난이다. 하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다. 아낌없이 사랑을 줌으로써 더 큰 사랑을 받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세계 아이들을 돌보는 '영원한 엄마'

현장 봉사를 은퇴하고서 그녀에게 다른 즐거움이 생겼다. 그는 몇 해 전부터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을 통해 26명의 아이들을 1대1로 후원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에서 매월 65만원을 떼어 몽골·스리랑카·에티오피아 등 다른 나라의 아이들을 돕는 일이다. 거실 가운데 놓인 사각테이블 위에는 결연후원아동에게서 온 감사편지가 있다. 편지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있다.

“가끔씩 시장을 보거나, 주일에 교회 갔다가 모임에서 식사를 같이할 때가 있어요. 1만원 정도는 금세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몽골이나 에티오피아 나라의 아이들은 1만 원짜리 세 장이면 한 달을 먹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 돈으로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이 없지만 그곳은 달라요. 내가 조금 더 아끼면 더 어려운 나라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으니 그게 기쁜 일이지요.”

스위스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봉사인생 20년, 이제는 세계 각지의 아이들까지 돌보는 닝게토. ‘아이들의 영원한 엄마’로 30년 나눔인생을 살고 있는 그에게 요즘 반가운 소식 두 가지가 들려왔다. 하나는 친여동생 소식이다. 스위스에 살고 있는 동생이 남편 퇴직에 맞춰 한국 언니 곁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해 온 것. 1985년 스위스를 떠나 온 이후 1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한 번 고국에 다녀왔을 뿐, 가족과 거의 소식을 끊고 살아왔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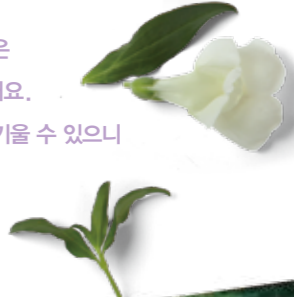
또 기쁜 소식 하나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겨서다.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한국인 친구로부터 충북 진천에 그가 살 수 있는 조그만 집을 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늘 변변치 않은 살림에 남만 도와주며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딱했는지 닝게토 할머니의 친구가 기꺼이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다.

꽃이 한창 필 5월이면 지금보다 살기 편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그에게 삶의 터전이 군산이나 진천이나는 중요하지 않다. 10마리의 개들과 함께 살 수 있고, 그를 두고 ‘مام미’라고 부르는 몽골 아이들이 보내 온 사진과 편지를 읽으며 지낼 수 있으면 족하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물었더니, 시내 음식점에서 7천 원 받는 이탈리아 파스타라고 했다. 그런데 ‘먹고 싶긴 한데 돈이 아까워 사먹을 수 없어. 아이들 생각이 나서’라며 고개를 절레절레한다. 앞으로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따스한 온정과 나눔의 기쁨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몽골이나 에티오피아 나라의 아이들은 1만원 세장이면 한 달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아끼면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으니 그게 기쁜 일이지요.



| 행사명 Title | 일시 Date and Time | 장소 Location | 내용 Context | 대상 Subject |
|--|--|--|---|--|
| 세계인의 날 행사 Celebration of 'Together Day' | 5.15, 14:00~16:30 May 15, 2012, 2:00pm to 4:30pm | 영등포아트홀 Yeondeungpo Art Hall | 토크콘서트 '하나된 다문화 어울림' Talk Concert, United Together of Various Cultures | 재한외국인 Foreign residents in Korea |
| 이민정책포럼 Immigration Policy Forum | 5.18, 14:00~16:30 May 18, 2012, 2:00pm to 4:30pm | 신흥대학교 에벤에셀관 Evezeer Hall, Shinheung College |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정책 연구 '다문화사회 청소년 시민교육' Study of Immigration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Civic Educatio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 대학, 언론사, 시민단체 사회통합교육기관 University, Press, Civic group, Institute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 모집(3차) New Applications for Social Integration Programs | 2012.7.9~7.20 July 9~July 20, 2012 | www.socinet.go.kr 접수 Apply Thru the website, www.socinet.go.kr |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교육 Korean language and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 모든 사회통합교육 참석 희망자 Open to all foreign residents |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차) Pre-Evaluation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 2012.7.28 13:00 July 28, 2012, 1:00pm | 덕계고등학교 Deokkye High School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신청자 평가 Level test for the participants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 모든 사회통합교육 참석 희망자 All prospective participants |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Interim-Evaluation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 1차 6.16(토) 13:00 2차 9.22(토) 13:00 3차 11.10(토) 13:00 1st Test : June 16, 2012, 1:00pm 2nd Test : September 22, 2012, 1:00pm 3rd Test : November 10, 2012, 1:00pm | 양주출입국 대강당 또는 덕계고등학교 Auditorium at Yangju Immigration Office or Deokkye High School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결과 중간평가 Middle test for the participants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 단계별 교육이수자 Participants finished each level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
| 사회통합프로그램 최종평가 Final Evaluation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 1차 5.19(토) 13:00 2차 8.18(토) 13:00 3차 11.24(토) 13:00 1st Test : May 19, 2012, 1:00pm 2nd Test : August 18, 2012, 1:00pm 3rd Test : November 24, 2012, 1:00pm | 양주출입국 대강당 또는 덕계고등학교 Auditorium at Yangju Immigration Office or Deokkye High School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결과 최종 평가 Final test for the participants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 전체 과정 교육이수자 Participants finished all courses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
| 국제결혼사전교육 Orientation Training for prospective applicants for international marriage | 매월 1,3주 수요일 14:00~17:00 Every 1st and 3rd Wednesday of each month, 2:00pm to 5:00pm | 양주출입국 대강당 Auditorium at Yangju Immigration Office | 국제결혼실태, 출입국관리법령 체험사례 안내 Introduction on reality and experience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and Korean Immigration Law | 국제결혼 예정자 Those who is going to marry someone with a different nationality |
|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Happy Start Program | 매월 2,4주 목요일 14:00~16:00 Every 2nd and 4th Thursday of each month, 2:00pm to 4:00pm | 양주출입국 대강당 Auditorium at Yangju Immigration Office |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국내 체류절차, 출입국관리법령 안내 Introduction on Korean Immigration Law and related immigration procedures for marriage immigrants | 결혼이민자격 입국자 Marriage immigrants |
| 재한외국인합창단 창단 Founding a Youth Choir | 2012.6월 June, 2012 | 양주출입국관리 사무소 Auditorium at Yangju Immigration Office | 청소년(내·외국인)으로 선발구성 사회통합행사, 지역별순회공연 예정 Establishing a youth choir composed of teenagers from both multi-cultural and Korean families | 내·외국인 청소년 Foreign and Korean teenagers |
|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간담회 Meeting of Marriage Immigrant Network | 분기별 1회 Quarterly | 양주출입국관리 사무소 Yangju Immigration Office | 자원봉사활동 격려 사회통합정책 발굴, 토의 Encouraging volunteer activities of marriage immigrants and discussing on social integration policy |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대표 Representatives of the Marriage Immigrant Network |
| 김장체험 Making Kimchi | 2012.11월 November, 2012 | 양주출입국관리 사무소 Yangju Immigration Office | 김장 등 한국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불우가정 김장지원 Making Korean traditional foods including Kimchi and charity event for the needy | 유관단체, 결혼이민자 Related groups and marriage immigrants |

OVERSEAS NEWS BRIEF

해외단신

세계 여러 나라의 출입국 관련 정책 및 이슈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세계 각국의 출입국정책을 알아보고, 최근 출입국 관련 뉴스를 통해 세계 동향을 파악한다.



FRANCE

01 프랑스 Sarkozy 대통령 쥘레노조약 탈퇴의사 시사

프랑스 Sarkozy 대통령은 “불법이주를 방지하기 위한 더욱 더 많은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프랑스 정부는 유럽의 공동국경관리를 위해 마련된 쥘레노조약에서 탈퇴할 것” 이라고 밝혔다. Sarkozy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의 한 집회에서 혁신이 유럽의 붕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1년 이내에 불법이민 방지에 관한 아무런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프랑스는 쥘레노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이민의 문제는 프랑스 대선에서 항상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실제로 Sarkozy 대통령은 “현재 프랑스에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재선에 당선된다면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를 절반으로 줄일 것” 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유럽위원회는 오는 5월에 쥘레노 시스템의 운영방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BBC News, 2012.3.11.)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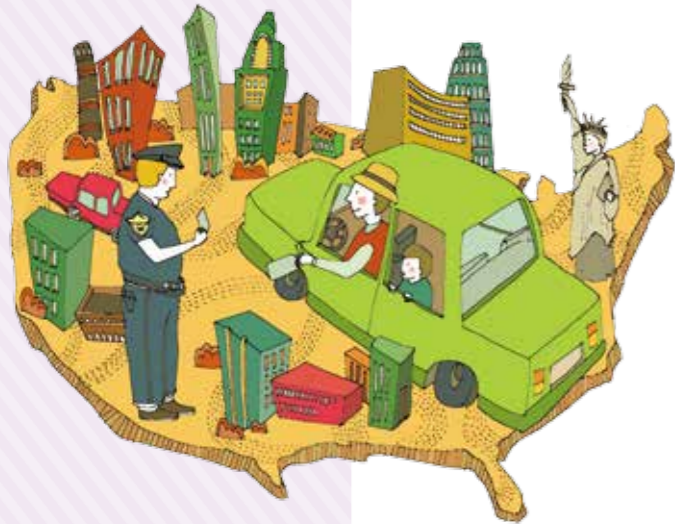
02 미 대법원, 애리조나 이민법 핵심 조항 동조

애리조나 이민법에 관한 대법원 심의에서 이념 성향을 막론하고 판사들은 초강경 애리조나 이민법을 유지시키는데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심의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 중 하나는 불법체류혐의자들에게 대한 경찰관의 신분 조회 의무화 조항이었다. 연방정부측은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주장해 왔는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조항은 주정부가 단순히 불법이민자들의 정보를 연방정부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며 집행결정권한은 여전히 연방정부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신분 조항 이외에도 애리조나 이민법은 이민자들이 연방법에 따라 서류 미비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와 불법 이민자들이 취업하거나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연방법은 불법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만 처벌하고 있지 불법인 피고용인을 처벌하고 있지 않다. 미 행정부는 애리조나 주의 이민법이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고 연방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정부의 법집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의견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인종차별적 조항에 이민단체 반발 우려

2012년 6월경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애리조나 이민법을 유지시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애리조나 이민법을 따른 앨라배마, 조지아,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각 주의 이민법뿐만 아니라 불법이민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주장해온 보수주의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이민자 단체들은 애리조나 이민법이 인종과 민족적 배경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간과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한 우호적인 판결에 강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New York Times, 2012.4.25.)



U.K.

03 영국국경관리청, 런던올림픽을 위해 출입국심사 서비스 신속화 추진

영국국경관리청(UKBA) Brian Moore 출입국심사과장은 "출입국심사에 있어서 보안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가장 중요하며, 영국국경관리청 직원들은 런던올림픽을 대비해 완벽한 시나리오로 출입국심사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회 의원들은 영국의 출입국정책으로 인해 영국의 이미지가 너무 실추되었다며 이에 대해 Damian Green장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실제로 비 EU권 국가 승객들은 영국 히드로 공항 제5 터미널에서 출입국심사를 받기위해 약 3시간이나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히드로 공항의 승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한달 동안 조사한 결과 영국과 EU 국가 국민의 경우 출입국심사 대기시간이 약 1시간 가량 소요되어 평균 출입국심사 서비스 대기시간 25분의 두 배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탄력적 인력배치로 심사시간 단축

3월 조사에 따르면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영국으로 입국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내무부장관은 영국 국경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영국국경관리청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민서비스조합의 Lucy Moreton에 의하면 현재 출입국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숫자가 너무 적어 현실적으로 단독기관으로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Moore과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국경관리청은 영국의 국경안보를 위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영국국경관리청은 국경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면서도 승객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승객들은 아무 문제없이 신속하게 영국의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Moore과장은 출입국심사 시간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다양하며, 주로 항공기 출도착 일정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



한다고 했다. 그리고 출입국심사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적기적소에 필요한 출입국심사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영국국경관리청은 승객의 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입국심사관을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방식 개선과 인력확충 필요성 대두

의회 의원들은 5월 중 이런 문제점에 관해서 이민장관에게 공식질의할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Vaz의원은 "런던 히드로 공항에 가면 심사대 절반이 비어 있고, 출입국심사를 위해 서너시간은 대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 노동당 의원이 BBC4 라디오 프로그램인 'Today's Programme'에서 출입국심사 지전문제가 최근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출입국심사를 소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심사 방식을 개선하거나 출입국심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런 문제는 올림픽을 위해서만 이 아니라 영국 히드로 공항의 국제적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BBC, 2012.4.28.)



AUSTRALIA

04 호주, 난민신청자 처리지연 심화

호주난민신청자 처리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난민문제에 대해 호주정부와 야당이 갈등을 빚고 있다. Chris Bowen 이민장관은 언론을 통해 "야당이 실질적으로 호주의 난민정책발전에 대해 최소한의 건설적인 공헌도 하지 않았으면서 정부정책에 비판만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호주정부의 난민정책에 반대를 표명한 Scott Morrison의원은 "정부가 말레이시아와 난민을 교환하는 정책에 대해 전혀 아무런 관심도 표명하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호주 정부는 해상으로 보트를 타고 입국한 모든 사람들을 호주 본토 혹은 Christmas섬에 위치한 보호소에 보호시키고 있으며, 최근 노동당의 말레이시아 협약에 대해 법원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Nauru섬 난민 심사센터 재설립 난항

집권당인 노동당과 야당인 자유당은 몇 개월 동안 해상으로의 입국을 시도하는 난민 신청자들의 행보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 난관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유당은 Nauru섬에 난민 심사센터의 재 오픈을 희망했고, 이는 노동당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야당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Bowen과 Morrison 사이에 오고간 편지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호주 이민시민부 공무원들이 지난해 시설점검을 위해서 Nauru섬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말레이시아와의 난민교환정책에 반대하던 야당과의 타협점으로써 Nauru지역의 난민심사센터 재설립을 검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최근의 편지에서 Bowen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이 소요될 Nauru 난민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마련의 어려움에 대해 야당이 알고 있는지 물으면서 야당을 향해 맹렬한 비판을 쏟아 부었다. 그는 약 750여 명의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 16억 불 이상의 금액이 요구되고, 새로운 시설들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도 무려 3억 불 이상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난민관리 사안 두고 여야 대립

말레이시아 난민교환정책에 의하면 호주는 해상을 통해 보트로 입국했던 난민신청자 800여 명을 말레이시아로 송환하고 그 대신 4년에 한번씩 약 4,000명의 난민을 받아들일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는 말레이시아가 UN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해당정책에 대해 위험판결을 내렸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말레이시아 난민교환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관리 분야에 더욱 더 많은 직원들을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호주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 중에는 난민신청자와 UNHCR직원과의 직접 소통을 도와줄 비상연락체계구축, 의료서비스지원, 상담, 가족과의 결합권 보장 등이 포함된다. 또한 호주정부는 호주의 인접국가로 보내진 난민들의 처우를 모니터 하는 의회 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제안들은 야당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Bowen은 정부가 보트를 타고 호주의 해안에 입국하는 난민들을 다시 바다로 되돌려 보내는 야당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난민들의 목숨과 호주 해상경비인력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BBC, 2012.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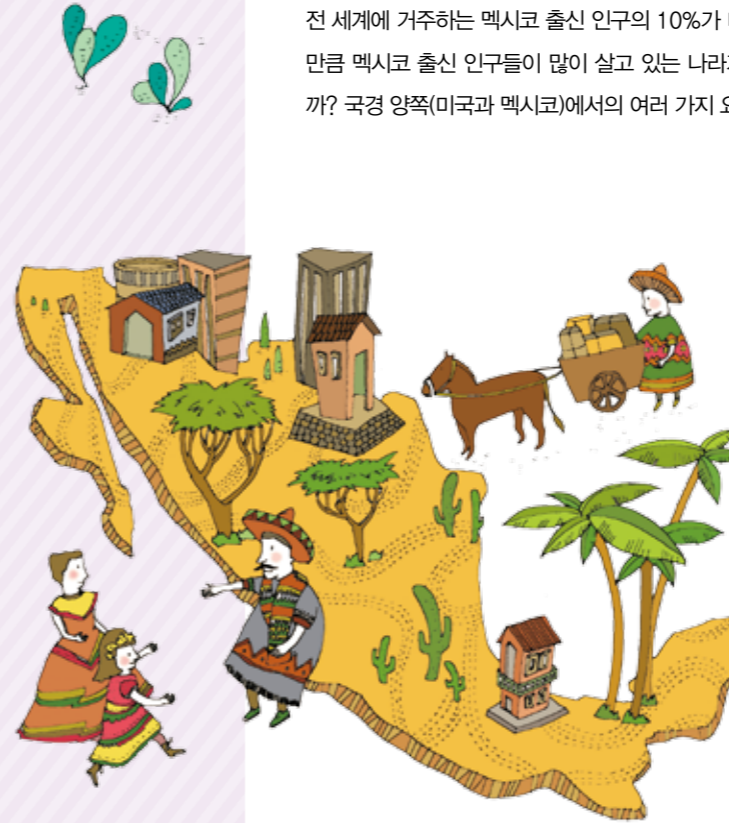


MEXICO

05 미국으로 향하는 멕시코 이민자 감소, 그 원인은?

40년 동안 이뤄진 수백만 멕시코인들의 미국 대거 이민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퓨 히스패닉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퓨 히스패닉 센터의 멕시코와 미국에 관한 자료 분석은 적어도 미국에 도착하는 새로운 멕시코 이민자 수만큼 미국 내의 멕시코 이민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미국을 떠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 출생

인구가 2007년도에는 1,260만 명이었던 것이 2011년 1,20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대공황 이래로 멕시코 이민자 수의 꾸준한 감소를 최초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전적으로 불법 이민 근절의 결과(more going home fewer coming)인 것이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 이민자 전체의 51%가 불법인 것으로 추정된다(2007년에는 56%가 불법). 하지만 최근의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멕시코는 단연코 미국 내 이민자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내의 멕시코 이민자 인구는 대부분이 국가 혹은 주의 인구보다 크다. 전 세계에 거주하는 멕시코 출신 인구의 10%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멕시코 출신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이다. 거대한 이민 유입을 멈추게 한 요인은 무엇일까? 국경 양쪽(미국과 멕시코)에서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악화로 불법체류 단속 강화

5년 전 미국 주택 시장이 붕괴되었을 쯤 멕시코 이민자 수의 급격한 감소가 시작되었다. 멕시코 이민자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던 건설현장의 일자리들이 사라졌으며, 미국 전체 경제의 악화가 계속되면서 다른 분야에서의 일자리 찾기도 더 힘들어졌다. 대침체(Great Recession) 상황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긴 하였지만, 취업시장은 예전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침체 기간 동안 미국 정부는 국경지대 및 국내 곳곳에서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였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가해졌고, 강제추방이 이루어졌다. 지난 5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간 멕시코인들 중에서 5%~35%가 강제 송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멕시코, 경제 성장과 출산율 감소 영향

국경지대의 다른 한 쪽인 멕시코에서 이루어진 개발 현상도 변화된 이주 흐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멕시코의 경제도 마찬가지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깊은 침체에 빠졌다. 그러나 2010년과 2011년 멕시코의 GDP는 미국의 GDP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눈부신 회복은 멕시코인들을 본국에 머물게 함과 동시에 해외의 멕시코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주흐름에 막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멕시코 내의 또 다른 요인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이다. 1960년 멕시코의 출산율은 7.3%였다. 이 수치는 멕시코 여성이 평생 동안 7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09년 2.4%로 감소하였다. 감소하는 출산율은 멕시코 인구의 중간연령대를 밀어 올렸다. 이러한 현상은 멕시코 인구의 15세부터 39세까지의 이주 전성기 연령대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멕시코 이민자 유입 멈춤 현상은 과연 계속될까? 양쪽 국가의 경제 동향과 미래의 정책 집행이 불확실하기에 알 수는 없지만 멕시코의 출산율 감소는 이주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젊은 연령층의 규모를 제한할 장기적인 변화요인으로 보인다. 차후에 멕시코 이민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그 감소율을 생각해보라. 1995년부터 2000년까지 3백만의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왔으며, 미국 내에서 출생한 가족을 포함하여 거의 70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400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왔고, 미국 내에서 출생한 멕시코 자녀들을 포함하여 똑같은 수의 멕시코 이민자들이 미국을 떠났다.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1990년대 후반의 이주 규모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듯하다. (CNN, 2012.4.26.)

작년 한해 출입국자 4천 5백만 명 넘어

체류외국인도 140만 명으로 다문화사회 진입 가속화



법무부는 2011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분야 통계 분석 결과 2011년 한 해 출입국자가 사상 처음으로 4천 5백만 명을 넘어서 45,422,910명(국민: 26,064,463명, 외국인: 19,358,447명)을 기록했고, 국내 체류외국인도 1,395,077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출입국자의 경우 국민 출국은 1.7% 증가, 관광·방문 목적의 외국인 입국이 11.4%로 대폭 증가하여 외국인 입국자 연간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 이는 한류열풍과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외국인들의 방문이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체류외국인도 140만 명이고, 이 중 장기체류 외국인이 110만 명을 넘어서 우리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모해가는 과정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심사도 셀프 서비스로 간편하게!

자동출입국심사대(Smart Entry Service) 이용자 1천만 명 돌파



지난 2008년 6월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최초 도입한 이래 3년 8개월 동안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여 출입국한 인원이 1천만 명을 돌파했다.

다. 자동출입국심사대(Smart Entry Service)는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출입국 심사 절차를 간소화·자동화하여 출입국 직원과 대면심사에 따른 승객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함께 늘어나는 출입국자 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는 2008년 6월 인천공항에 20대를 설치·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해에는 24대로 증설, 김포공항 4대, 김해공항 3대를 설치하는 등 현재 전국에 31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 인천공항에 14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입학 다문화가정 자녀와 가족 격려

안산지역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책가방, 학용품 전달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9일 경기도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와 외국인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이 날 방문에서 권재진 장관은 초등학교 취학 예정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만나 함께 오찬을 하고, 다문화마을 특구 현황을 청취하는 등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필리핀, 베트남,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결혼이민자 가족의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이들 자녀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전달하였다.

한편, 외국인 주민들이 건전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센터가 역할을 잘 해 줄 것을 당부한 권재진 장관은 오찬 이후 중소기업법률지원단('9988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법률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 실정과 건의사항을 듣고 앞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본인 공로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 특별귀화자 탄생

4대째 이어 우리나라 사회발전에 커다란 공헌한 인요한 박사

구한말부터 4대째 대를 이어 우리나라의 교육, 복지 등 사회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미국 기독교 선교사 집안의 후손인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인요한(53) 박사가 본인의 공로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최초의 특별귀화자로 선정되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21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인요한 박사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축하했다.

인요한 박사는 전북 전주에서 출생하여 전남 순천에서 성장했다. 1895년 미국남장로교에서 호남지역에 파송된 '유진벨'(한국명 : 배유지, 1868~1925) 선교사의 외증손으로서 4대째 대를 이어 선교 및 교육·의료·봉사활동 등 우리 사회발전에 공헌해 온 선교사 집안의 후손이다.

인 박사는 또 1993년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하여 119 응급구조체계의 산파 역할을 하였고, 유진벨재단 이사장인 친형 '스티븐 린튼'(한국명 : 인세반, 62) 씨와 함께 1997년 이후 26차례 방북, 결핵약품과 의료장비를 무상 지원하여 북한 결핵퇴치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기도 했다.

인 박사는 특별귀화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기존의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나라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제5회 세계인의 날 기념 글그림 공모전 개최

5월 20일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가족 대상 각종 공모전 열려

법무부는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후원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5월 20일 제5회 세계인의 날 맞이 글그림 공모전과 수기공모전을 개최했다.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글그림 공모전은 '더불어 사는 세상, 희망 만들기'의 주제로 응모를 받았다.

지역별 접수와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입상작은 오는 5월 20일 행사기간 중 전시될 예정이며 각 분야 최우수·우수상은 법무부장관상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여하고, 각 분야 특별상은 우리금융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사장상을 수여한다.



K.I.S.Information

전문직 종사자, 국민 배우자, 영주자 등 대상 확대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쉬워져

지난 4월 30일부터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대상자가 2개 체류자격에서 10개로 대폭 확대됐다. 지금까지 이용 대상자는 영주(F-5),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 한정돼 이용률이 미비했다. 이에 기존이용대상에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그 동반자(F-3), 국민의 배우자(F-6) 등 8개 체류자격 소지자를 추가했다.

Expansion of Eligible Users for Smart Entry Service

Eligible groups of foreign users for Smart Entry Service(SES) are expanded on April 30, 2012. From F-5(Permanent Resident) and D-8(Business Investor) status holders to those who have D-7(Intra-Corporate Transferee), D-9(Business Trader), E-1(Professor), E-3(Researcher), E-4(Technological Trainer), E-5(Professional) status and their dependants(F-3), and F-6(Spouse of Korean Citizen) are also able to register for the automated clearance system.

여수·무안공항 도착비자제도 최초 시행

여수세계박람회 중국인 관람객 유치 청신호!

여수세계박람회 기간(5.12. ~ 8.12.)동안 여수·무안국제공항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착비자제도를 운영한다. 도착비자는 '도착비자 신청확인서'를 소지한 여행객에 한해 비자 없이 국내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도착비자 신청확인서'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사가 광주·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예정자 명단을 사전에 전송하면 해당 사무소장이 1~2일 이내에 발급한다.

The First Visa on Arrival Policy for 2012 Yeosu Expo

KIS issues visas upon arrival for Chinese tourists at Yeosu and Muan international airports during the 2012 Yeosu Expo(May 12 ~ August 12). A travel agency responsible for Chinese tourist groups should send a list of tourists to Gwangju or Yeosu Immigration Office prior to departure, and the immigration officers will issue a Confirmation of Application for Visa on Arrival within a few days. The arrival visas are to be issued only to the tourists who have such a confirmation.

Blue post는 <共Zone> 독자 여러분들이 참여해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共Zone> 이 보다 알차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BLUE POST

2012 SPRING

처음 <공존>을 봤을 때 외국인만을 위한 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읽다보니 내국인을 위한 유익한 정보도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겨울 호에 실린 '짬뽕생활 사박물관'에 대한 기사는 한국 사람인 저도 알지 못했던 정보였습니다. 체험프로그램도 있다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가보려고요. 앞으로도 내·외국인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존>이 되길 바랍니다. **최정원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번 호에서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만화였습니다. 재미로 읽다보니 캐나다 유학시절이 떠오르더군요. 영어가 서툴러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무척 고생했거든요. 그 때 캐나다에도 1345콜센터가 있었다면 정말 편리했을 텐데. 많은 외국인들이 이 용해 한국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박예나 충남 아산시 배방읍**

우연히 <공존>을 보게 됐습니다. 필리핀인 김안지 씨가 보육교사로 당당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같은 필리핀 여성으로 꿈을 잇고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김안지 씨처럼 취업에 성공하고 싶어요. 저에게 잇고 있던 꿈을 일깨워줘 감사합니다. **클라리사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긍정적인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연중 다문화가정과 소외계층을 동일시하고 있었네요. '특별한 인연'의 이자스민 씨 인터뷰 중 '가면 갈수록 다문화라는 단어를 없앨 것'이라는 부분이 와 닿습니다. '다문화'라는 말이 사라질 사회를 꿈꾸며, 소통의 창으로 <공존>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김혜옥 전남 진도군 고군면**


부산에 자주 갔었지만 크루즈를 통해 이처럼 많은 외국인이 오는 건 몰랐어요. 크루즈가 한 번 입항할 때마다 4천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들어온다니 부산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의 노고가 느껴집니다. 외국인들이 처음 마주하는 한국인인 만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지금처럼 친절한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조승민 경북 포항시 상도동**



음식으로 배우는 한국



봄철, 건강지킴이! 각종 영양소 풍부한 '곰취나물'

묵은 겨울이 지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소생하는 봄. 하지만 조석으로 급변하는 일교차에 적응하지 못한 우리의 몸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게다가 춘곤증까지 더해진다. 입맛도 없고 피곤할 때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달래, 냉이, 쑥 등 봄나물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쑥궁 얼어붙은 척박한 땅에서 겨우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각종 비타민과 영양소가 풍부한 봄나물로 원기를 회복했다고 한다. 입맛 돌게 만드는 봄나물 중 하나인 '곰취'는 '깊은 산 속 곰이 즐겨 먹는 풀'이라고 하여 '곰취'라고 불리게 된 풀이다. 그러나 '곰취'라는 이름이 붙게 된 진짜 이유는 곰이 살 정도로 깊은 산 속에서만 자라기 때문이라고. 취나물 중 향이 가장 풍부한 '곰취'는 씹을 때 입안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내음이 부드러워 봄철 입맛을 돋우는 봄나물 음식 대표다. 건강식 곰취는 여성음식이기도 하다. 섬유소질이 풍부하여 변비에 좋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식으로 좋아서다. 또한,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어 항암효과 외에도 혈액의 응고를 억제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조리방법은 매우 간단해서 요리에 자신 없는 초보주부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 곰취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된장에 곁들여 쌈을 싸먹거나 나물로 무쳐 내도 맛이 좋다. 대개의 봄나물은 맛과 향이 뛰어나고 겨우내 쑥궁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나온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약재로 쓰일 정도로 몸에 유익한 식품이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전통음식, 곰취나물로 봄철 입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겨보자. 

<곰취나물 무침 레시피> 재료 : 곰취(2 묶음), 들기름, 소금, 참깨, 실고추, 파

- ① 곰취를 끓는 물에 데쳐낸다. ② 데친 곰취를 찬물로 헹군 후 손으로 찌서 물기를 제거한다. ③ 볼록한 그릇에 곰취를 넣고 들기름, 참깨, 소금을 기호에 맞게 넣어 무쳐낸다. ④ 양념이 골고루 배이면 다진 파와 실고추를 곱명으로 얹어내면 완성!